

8-15-2015

지역 교회에서의 효과적인 다문화 사역 방안: 이천 신하교회를 중심 으로

Sung Hwan Hong 홍성환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홍성환, "지역 교회에서의 효과적인 다문화 사역 방안: 이천 신하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
대학원, 201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FFECTIVE STRATEGY FOR MULTICULTURAL MINISTRY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CHEON SHINHA CHURCH

written by

SUNG HWAN HO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Hyung Kook Oh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August 15, 2015

**AN EFFECTIVE STRATEGY FOR MULTICULTURAL
MINISTRY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CHEON SHINHA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UNG HWAN HONG

AUGUST 2015

지역 교회에서의 효과적인 다문화 사역 방안
- 이천 신하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오 형 국 교수

홍 성 환

2015년 8월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Multicultural Ministry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cheon Shinha Church

Sung Hwan Hong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nce the late 1980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increased in Korea due to international marriage. In this context, Korean churches must recognize multicultural families as their neighbors whom the churches have to love and serve in Christ.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present a practical strategy for multicultural family ministry in a local church.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ix chapters. In the introductory chapter, I introduce the questions, purpose, and methods of this study. In chapter 2, I define “multicultural family” in sociological and biblical senses. Chapter 3 deals with issue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n society, such as cultural differences, cultural barriers, financial difficulties, troubles with one’s spouse, children’s problems, and others.

Chapter 4 surveys the current stat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Gyeonggi-Do area, and then introduces some churches and centers that provide examples of great multicultural family ministries in Gyeonggi-Do area.

In chapter 5, I suggest a strategy for multicultural family ministry in a loc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cheon Shinha Church. This strategy emphasizes that a local church must present a clear vision and share it with the church’s members. After that, the church has to equip its members for that ministry. Then the church can begin ministry for multicultural families. I also present some practical ways to carry out this ministry, such as offering worship services using multimedia technology, providing Korean language school, hosting

multicultural festivals, and so forth. The final chapter concludes this ministry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Hyung Kook Oh,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글

1975년 추운 겨울 은평구 갈현동 작은 상가 한편에서 주일이면 다섯 명의 성도가 '나의 갈길 다가도록'을 힘껏 부르며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강단에 서신 분은 늦은 나이에 개척을 하신 아버지였고 동그랗게 둘러앉은 성도는 저를 포함한 네명은 저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라고 말씀해주셨고 그 말씀대로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신앙과 삶의 향기가 가난했지만 우리 가족은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목회적인 환경에서 아버님이 보여주셨던 목회의 한결같은 모습이 저희 형제들에게 깊은 교훈이 되어 지금은 4형제 모두가 담임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04년 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만 8년 만에 2012년 12월 첫 주에 이천에 위치한 이천신하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목회지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들이 씨실과 날실이 되어서 서로 얽여가며 울기도 하며 웃었던 세월이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의 목회였지만 목회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건과 이야기들을 종종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중 하나가 다문화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정부의 시책은 미흡했고 지자체행정에서의 지원은 고작 경제적 도움과 최소한의 행정적 안전장치였지만 그러한 지원 시스템이 그들의 가정을 지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해보였고 실제로 별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곳 이천은 서울과 조금은 다른 특수한 지역이라 여겨집니다. 도시와 농촌과 공장이 함께 공존하는 도농공(都農工)지역이기에 지역의 특수성으로 다문화 가정이 더욱더 많습니다. 많은 경우의 다문화가정은 문화와 세대와 언어차이로 이혼으로 인하여 가정 붕괴를 가져왔고 가정의 붕괴는 곧 자녀의 탈선으로 이어졌고 자녀의 탈선이 자연스럽게 사회문제로 확대되어가고 있음이 이천지역에는 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서 이곳에 위치한 우리교회가 로컬처치(local church)로써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들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가정을 세워가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귀한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하고 고귀한 사역이라 여겨졌기에 부족한 논문을 통해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만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이 줄지가 나올 때까지 자료 수집으로 도와주신 김윤기 목사님, 박용운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저 곁에서 항상 격려해 준 저의 가장 소중한 아내 석은숙 그리고 11년 만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하늘과 사랑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적극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사랑하는 당회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8월 홍성환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4
제 2 장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6
제 1 절 다문화 가정의 일반적 이해	6
1. 다문화 가정의 정의	6
2. 다문화 사회	8
3. 다문화 가정	10
4. 결혼이주여성	11
5. 상호문화화	13
제 2 절 다문화 가정의 성경적 이해	16
1. 성경 속의 다문화 가정	16
가. 구약의 이해	16
나. 신약의 이해	18
2. 성경 속의 다문화가정 발생원인	20
가. 자발적 이주	20
나. 경제적 이주	20
다. 정치적 이주	21
3.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 사역의 원리	21
제 3 장 다문화 가정의 실태	24
제 1 절 국내 다문화 가정 현황	24
1.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24
가. 국내적 원인	24

나. 결혼이주여성의 능동적 선택	26
2. 다문화가정의 유형과 분포	28
제 2 절 다문화 가정의 문제	30
1. 사회적인 문제	31
가. 문화차별	31
나. 소외와 갈등으로 인한 문제	32
다. 신분상의 불안	33
2. 부부관계 상의 문제	34
가. 언어소통	34
나. 주거 및 경제생활	36
다. 자녀 교육	38
3. 자녀들의 문제	39
가.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39
나. 집단 따돌림	40
다. 균등한 교육 기회의 상실	42
라. 중도 입국 이주청소년들	43
4.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 사역의 과제	44
제 4 장 경기도 지역 다문화가정 현황과 사역 실례	46
제 1 절 지역 교회의 다문화 사역 실례	48
1. 세상의 빛 선교 교회(LEMC)	48
가. 세상의 빛 선교 교회(LEMC) 소개와 사역 현황	48
나. 사역 내용 및 특징	49
다. 평가	50
2. 장호원감리교회	58
가. 장호원감리교회 소개와 사역 현황	58
나. 사역 내용 및 특징	63
다. 평가	68

3.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	58
가.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 소개와 사역 현황	58
나. 사역 내용 및 특징	63
다. 평가	68
제 5 장 지역교회의 효과적인 다문화사역 제안 : 이천신하교회를 중심으로	70
제 1 절 이천신하교회 소개 및 현황	70
제 2 절 다문화 사역동기 및 배경	
제 3 절 다문화 사역 비전제시	
1. 비전 제시와 정책당회를 통한 목회정책 수립	70
2. 설교를 통한 비전 제시	71
3. 교육을 통한 비전 제시	72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견학을 통한 비전 제시	72
5. 『다문화 가족 성도들을 위한 바자회』 사업을 통한 비전 제시	73
제 2 절 위원회 구성 및 훈련	74
1. 위원회 구성 및 훈련	74
가. 위원회 구성 기준	74
나. 위원회 훈련	74
제 3 절 실천	76
1.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사역	
2. 다문화 가정을 위한 효과적인 예배	76
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	76
나. 다문화가정의 언어와 문화를 고려한 예배	78
다. 다문화가정의 결혼과 자녀들을 위한 예배	79
3.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84
가. 한글학교	84
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제자훈련	85
4.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구제 및 장학)	86

가. 제 1회 이천신하교회 다문화가정의 날	86
제 4 절 평가	87
1. 위원회의 평가	87
2. 다문화가정 예배 참석자의 평가	89
3. 필자의 평가	90
제 6 장 결 론	87
부록	91
참고문헌	113
Vita	117

표 목 차

<표 1>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9
<표 2> 다문화가정의 분류	10
<표 3> 국제결혼 이주자 연도별 증가 추이	12
<표 4> 결혼이주자가 현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	26
<표 5> 결혼이주자 현황	27
<표 6> 결혼이주자 국적별 현황	28
<표 7> 결혼이주자 지역별 체류 현황	28
<표 8> 거주 지역별 집 소유 형태	35
<표 9> 연령별 집 소유 형태	35
<표 10> 거주 지역 평균 소득	36
<표 11>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별 현재의 삶의 대한 만족도	37
<표 12> 다문화가정의 거주 지역별 초등학교 자녀교육상 가장 어려운 점	37
<표 13> 다문화가정의 거주 지역별 초등학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38
<표 14>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유	39
<표 15> 일반 가정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탈 학교을 추정	41
<표 16> 중도 입국 이주청소년 제학을 현황(2010년 3월)	43
<표 17>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47
<표 18> 다문화가정 위원회 훈련 내용	73
<표 19>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프로그램 진행표	84
<표 20>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평가 보고서	85

그림 목 차

<그림 1> 세종양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조직도	51
<그림 2> 다문화가정의 분류	10
<그림 3> 국제결혼 이주자 연도별 증가 추이	1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현재, 전 세계의 나라들의 추세를 보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화, 국제화의 시대가 된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단일 민족을 강하게 자부하던 대한민국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1997년에 38만 명에 불과 했던 외국인 거주자가 10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¹⁾ 2010년에는 121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는 우리 사회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09년 5월 기준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이 중에 한국인의 일부가 되어 우리 속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주자는 16만 7,090명으로 전년보다 15.7퍼센트 증가했으며, 더욱 급속도로 다문화가 진행되어 2050년에는 216만 4,886명²⁾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태로 2050년경에는 우리나라 영아(0~2세) 3명 중 1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정책도 다문화가정을 향하여 중장기적인 차원의 복지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시민사회 단체들 또한 학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실제적인 접근과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준비하지 못하고 선교와 목회적인 과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한국교회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역은 미래 한국교회 사역의 중요한 한 축이요 핵심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1) 법무부 홍보관리실, “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 보도자료, 07년 08월 24일.

2) 김형기, “인구 5% 다문화가족 시대 온다”, 강원일보, 2010년 07월 14일.

특히, 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 이유는 이들은 우리 사회의 신 빈곤층을 형성하며 가장 소외된 자리에서 신음하며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에 온 결혼 이주여성들은 언어와 문화라는 큰 장벽 앞에 함몰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몇몇 가정에서는 인종과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폭력과 인권유린까지 당하는 여성들이 늘어 나고 있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상당수의 가정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문화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부담은 다문화 가정의 각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간다면 그들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좋은 사역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국교회의 대다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가 다문화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가지 정도의 목적을 두고 논의를 하려고 한다.

첫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 특히 지역교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데, 이럴 때 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사역을 특히 견실하게 운영해 가는 몇몇 교회를 살펴보면서, 기본적인 다문화 사역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기한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다문화 사역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이천 신하교회의 다문화 사역을 집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다문화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지역교회가 어떤 형태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들을 선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주로 다문화가정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서적과 논문, 인터넷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 방법, 현장 방문 조사 방법, 해당 기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함께 본 연구자의 다문화 가정 사역에서 얻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 이천이라는 도농지역의 특수성과 다문화가정의 분포 등에서 연구의 한계점들이 있지만, 다문화 사역이 지역교회 현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본 논문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의 도전과 제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특히, 이 장에서는 지역교회가 왜 다문화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찾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현실적인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들이 겪는 고충, 특히 사회적인 문제와 부부문제, 자녀 문제점들을 두루 살펴보면서 이런 상황가운데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한국교회가 왜 다문화사역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인지를 살피게 될 것이다. 즉, 이 장에서는 이 시대에 왜 다문화사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목회적인 근거를 찾아보게 될 것이다.

4장에서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사역의 실제,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들이 운영하는 다문화 사역의 실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다문화 사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2장과 3장의 논의를 기준으로 그 사역들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될 것이다.

5장에서는 이천신하교회 다문화 사역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를 통해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다문화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미래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6장 결론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다문화 사역에 대한 제언을 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제 2 장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오늘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도 단일 사회에서 점점 더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 직면하여 한국교회가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의 사역은 많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미래사역의 전망 또한 매우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본 장에서는 먼저, 현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다문화 사역의 성경적인 가르침도 찾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다문화 가정의 일반적 이해

본 절에서는 현 시대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다문화 가정의 정의

‘다문화’라는 용어는 90년대 중후반에 일부 지원 단체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다문화’라는 용어가 정부 정책과 이주 노동운동 진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주 여성의 처우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게 된 것과 관련이 깊다. 지원 단체와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다문화’를 채택하였고, 2006년에는 정부, 학계, 이주 노동운동 진영을 망라하여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 가족’에 대

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용어도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³⁾

또한 다문화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분야와 학파에 따라, 나라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다문화란 명사는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의 다양성과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페티 로버트(Petit Robert) 사전은 다문화를 간단하게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⁴⁾ 다문화는 하나의 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가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경험되어지고 습득되어지며 떼어 놓을 수 없는 문화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 속에 살다가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문화’라 하며 ‘문화적응’이라고 한다. 문화 A와 문화 B가 접촉하면 두 문화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집단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 모두에서 문화적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 개인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행동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심리적, 사회문화적인 적응이 이루어진다.⁵⁾

구체적으로, 이주근로자 가정은 같은 국적의 사람들끼리 결혼한 가정과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한국 사람과 결혼한 가정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국의 문화와 정주국인 한국의 문화 등 이중, 삼중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의 자녀를 ‘혼혈아, 코메리칸⁶⁾, 아메리시안⁷⁾, 아이노꼬⁸⁾, 코시안⁹⁾ 등으로 불려왔으나 이제는 다문화 가정 자녀로 부른다.¹⁰⁾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중에는 자신들을 ‘다문화인’이라고 규정짓는 것을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즉, 우리가 편의상 ‘다문화인’이라고 이름 지어 부르면서 그들에게 ‘남들과 다르다’는 피해의식을 심어주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¹¹⁾

3) 김범수 외 공저, *다문화사회복지론* (경기: 양서원, 2007), 61.

4) Marco Martiniello,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역 (서울: 한울, 2008), 88.

5) 한국청소년 상담원 편, *다문화 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사회적응 상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10.

6)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혼혈아.

7) 미국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아.

8) 아시아인과 일본인 사이의 혼혈아.

9) korean과 asian의 합성어로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웅이 1996년 처음 사용.

10) 최충욱 외 공저,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경기: 양서원, 2009), 332.

2. 다문화 사회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종교, 성별, 나이 등의 다양한 문화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어 가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였을 뿐 우리 사회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현대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 사회는 최근 세계화로 인한 전 세계적 이주민들과 그들의 문화로 인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형태는 발생배경과 이유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그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인 미국과 캐나다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정치, 사회, 교육에 있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 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각 문화를 존중하고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 간의 우열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흡수하는 동화주의의 양상을 보이는 반면, 캐나다는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사회와 문화를 대등한 관계로 보는 문화상대주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¹²⁾

둘째, 동질적인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이민정책을 통해 다른 민족을 받아들여 다민족, 다문화화 되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대표적인 국가들로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개방정책 또는 통제 정책을 실행하며 이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새로운 대안 문화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시장의 금융시장의 탈규제화, 신자유주의적 동화주의와 안보전략으로 생겨난 세계화, 문화적 권리,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는 인종차별철폐 인권운동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은 2007년 8월에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백만 명을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백만이라는 인구는 한국 전체 인구에 비하면 2.2퍼센트에 불과한 수치이지만, 한국 국민들이 수천 년 동안 단일민족이라고 여겨왔던 것을 생각하면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불과 이십여 년 사이

11) 이현정,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 있다* (서울: 원앤원북스, 2009), 33.

12) 오태관,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교육적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2006년 제15집, 186-87.

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¹³⁾

법무부 2014년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단기체류자 포함)은 1,158,866명으로 전체 인구의 2.3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에 체류 외국인의 수가 750,87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5배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1,797,618명으로 전체 인구의 2.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 비해 1.2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외국인의 비율이 2020년에는 5퍼센트, 2050년에 9.2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¹⁴⁾ 표 1>은 체류 외국인의 증가를 보여주는 표이다.

<표 1> 체류외국인 증가추이¹⁵⁾

단위:명

연 도	총 계	등 록	단기 체류	거소 신고
2004년	750,873	468,875	259,464	22,534
2005년	747,467	485,144	236,958	25,365
2006년	910,149	631,219	249,542	29,388
2007년	1,066,273	765,746	266,011	34,516
2008년	1,158,866	854,007	263,402	41,457
2009년	1,168,477	870,636	247,590	50,251
2010년	1,261,415	918,917	258,673	83,825
2011년	1,395,077	982,461	277,596	135,020
2012년	1,445,103	932,983	324,504	187,616
2013년	1,576,034	985,923	356,842	233,269
2014년	1,797,618	1,091,531	419,673	286,414

이러한 사실은 서구 국가들에서만 논의 되었던 다문화, 다인종 문제를 이제 한국에서도 사회 현상의 주요한 변화 중의 하나로 논의하는 것이 낫설지 않게 되었고, 교회도

13) 김은미, 양옥경, 이해영, *다문화사회, 한국* (파주: 나남출판사, 2009), 17.

14) 윤인진 외 3인,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서울: 이담북스, 2010), 4.

1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인구 구성의 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단일민족, 문화, 언어로 구성된 사회라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¹⁶⁾

3.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이란 결혼을 통하여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과 가치관과 문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같은 단일 민족 국가에서는 국제결혼이 전제가 되며, 실제적으로는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아메라시안’이라 하고, 1960-70년대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라이파이한’이라고 불렀다.¹⁷⁾

“2003년에 3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에서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대신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 2세’로 부르자”¹⁸⁾고 제안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NGO단체에 의해 2005년도부터 “다문화가정”¹⁹⁾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지원법은 더욱 상세하게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결혼이민자와 출생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이나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다른 나라의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 후 국내에 거주하면서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만을 의미 한다. 다문화가족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외국인 노동자 가정 및 국제결혼 이주자 가정으로 제한하여 전개했다. 세계의 모든 가정은 다문화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사회는 세계화로 국경을 넘는 이주민들과 현지인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다인종 사회이다. <표 2>는 다문화가정의 분류를 표로 만든 것이다.

16) 조성돈 외 3인, *더불어 사는 다문화 함께하는 한국교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36-37.

17) Ibid., 13.

18) 백승주 외, *다문화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2009), 3.

19)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사회의 문화 쟁점과 정책방향*, (다문화포럼자료집, 2008), 6.

<표 2> 다문화가정의 분류²⁰⁾

다문화가정	그 자녀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외국인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자녀 ²¹⁾
	본국에서 결혼한 가정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자녀
기타 이주민 가정	유학생, 탈북 이주자(새터민)의 자녀

4.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적의 차이만으로 국제결혼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나 배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로 인종, 문화, 그리고 언어가 다른 것까지 포함한다.

가부장적 유교사회였던 한국사회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해 남녀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또한 도시 지향적 사고의 확산으로 이촌향도의 현상이 야기되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농어촌이나 산촌에서까지도 외국인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지구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자본과 상품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사람도 활발히 이동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여성결혼이주자들은 성(Gender), 전지구화(Globalization), 이주(Migration)현상으로부터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표 3>은 국제결혼 이주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를 담고 있다.

<표 3> 국제결혼 이주자 연도별 증가 추이²²⁾

단위:명

20) 박홍순, “한국사회의 이주민, 대안적 정체성 그리고 성서해석”, *선교와 신학*, 2007년 제20권, 155-184.

21) 백승주 외, *다문화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3.

2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122,552	125,087	141,654	144,681	1,445,103	1,576,034	1,797,618
전년대비 증감률	11.0%	2.1%	13.2%	2.1%	2.1%	2.2%	2.8%

2007년 국제결혼은 총 혼인건수의 11.1퍼센트를 차지하였다. 국제결혼 중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비율은 75.7퍼센트를 차지하여,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24.3%)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다. 총 혼인건수는 비슷한데 반해, 전체적으로 국제결혼은 외국인 아내나 외국인남편 모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국제결혼을 통한 혼혈을 금기시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사회 결혼 적령기의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비정상적이라는 데 있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의 수보다 남성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보니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결혼 적령기 남성과 여성의 성비불균형은 과거 우리나라의 뿌리 깊었던 남아선호사상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남아선호 사상에 이어 독신 여성의 급증 또한 결혼 적령기 남성과 여성의 성비 불균형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보편화되고, 여성의 경제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면서 한국 사회는 독신 여성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자가정의 구성원 중에는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전문직의 외국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국에서의 정착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 여성결혼이주자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관심은 그들과 그 자녀들의 생활 및 교육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5. 상호 문화화

문화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다.²³⁾ 그러나 이러한 문화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어떠한 문맥과 상황 속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사회학적인 관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는 흔히 문화를 인간의 상징체계, 혹은 생활양식으로 정의한다. 인간은 상징체계를 통해 사회를 경험하고 인식하며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한다.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상징체계를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며, 그 상징체계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의 질서와 규범, 즉 생활양식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양상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언어생활이다. 예컨대 한국어에서는 지위,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그러한 언어 규범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언어 규범에 따라 말을 할 때 한국어의 언어 체계가 담고 있는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따르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사회에서 의미질서, 혹은 상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그 자체가 문화임을 알 수 있다. 문화를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혹은 그것의 기반이 되는 상징체계라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 작용의 산물이 아니라 한 사회의 관습, 가치, 규범, 제도, 전통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를 개인, 집단, 종족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으로 정의할 때, 집단 사이의 문화적인 차이는 위계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문제로 인식된다.²⁴⁾

한편, 선교는 이러한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문화선교는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되어야 할 대상”²⁵⁾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의 빛에 의해서 변화시켜 가려는 기독교 문화운동”²⁶⁾을 문화선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또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변혁되고 치유 되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문화명령이다.(창1:28) 하나님은 아주 능동적으로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단어로 명령하셨다. 이러한 말씀들은 축복의 말씀들이나 동시

23)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 [culture, 文化]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4) Ibid.

25) 임성빈 외,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33.

26) Ibid., 45.

에 명령이요 사명의 위임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온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건설하라는 위탁이 문화명령인 것이다.²⁷⁾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유한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을 이러한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데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반역한 결과, 에덴을 상실하여 이주자처럼 나그네 삶을 살게 되었고 가인의 후예를 통하여 이기적인 세속의 죄 문화가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교만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인간집단의 언어와 문화들은 서로 불일치하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다. 이처럼, 다문화 세계의 뿌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반항에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게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의 반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다문화 세계로 이끌어 가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점이다. 물론, 인간의 실수가 미화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을 도리어 다문화 세계를 이루는 데에 사용하셨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오늘날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상호문화 교류를 통하여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인 “문화를 통한 선교”가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문화가정을 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욱 전문화해야 한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각자의 고유의 전통문화를 성찰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배일 확장하고 정확되는 과정인 천로역정을 가는 나그네 위치에 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통로이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느냐에 따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인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소유한다.

다문화를 향한 선교는 그들과 우리의 문화가 동화도 아니고, 융합도 아니고, 타협과 양보도 아니다. 교회는 용광로와 같이 한 문화로 용해된 획일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자이크와 같이 다양한 문화가 각기 특색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²⁸⁾

27)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29.

28) 문화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다.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여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선교의 최종 목적은 서로의 은사와 문화를 존중하되 함께 그리스도의 문화로 어우러져 반짝이는 모자이크와 같이 다양한 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다문화 가정의 성경적 이해

첫째 적응(adaption, accommodation)이란 용어가 있다. 이 개념은 한 문화가 다른 우월한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말하는 바, 열세한 문화의 역동성을 진지하게 취급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닌다. 이 용어는 두 문화 사이의 관계를 피상적인 외부 접촉 관계로만 보고 있다.

둘째는 토착화(indigenization)라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전통적 토착 지역민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 지역의 과거 전통적 문화의 정체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급격하게 변하는 오늘의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셋째, 문화화(enculturation)란 용어에 대해 검토하여 보자. 문화화는 문화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용어는 문화인류학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사회학자들은 이 개념을 사회화(socialization)라는 용어로 비슷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것은 한 개인이 지배적 문화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곧 지배문화를 배우는 과정이 문화화이다. 이 개념은 이주자 고유문화의 가치를 왜소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넷째는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란 용어이다. 이 용어 또한 인류학에서 유래된 말로서, 상호접촉으로 인한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접촉 현상을 설명한다. 문화화(enculturation)가 자신의 지배문화에 대한 그의 적응을 말하는 것이라면, 문화접변(acculturation)은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로부터 그 문화요소를 차용하여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문화접변은 상이한 문화를 가진 제 집단들이 상호접촉을 통하여 어느 한 편 혹은 쌍방집단의 종래의 문화내용에 변화를 일으켰을 때 보이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문화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문제만을 강조한 나머지, 기존 문화의 사회현실 안으로 심도 있게 스며들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문화내토착(inculturation)이란 개념이 있다. 이 용어는 현재 가톨릭교회의 토착화 이론을 표현하는 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어느 정도 문화화(enculturation)란 용어와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란 용어의 의미를 종합한다. 문화화란 한 문화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문화접변이란 문화와 문화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반면, 문화내토착이란 한 문화가 다른 문화 내부로 스며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여섯 번째의 개념은 상호-문화화(interculturation)이다. 상호-문화화를 강조하는 측은 위의 둘째, 셋째, 넷째의 문화화(culturation)의 개념들이 일방적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한 문화의 지배적 침투보다는, 상호교환적인 작용을 강조한다. 이 용어는 두 문화 사이의 관계를 상호대화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문화화의 개념은 오늘과 같은 다문화(multicultural) 사회의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추천된다.

앞 절에서 다문화 가정의 기본적인 이해를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현 시대에 왜 다문화 사역이 필요한지 성경적인 가르침을 구하고자 한다.

1. 성경 속의 다문화 가정

가. 구약의 이해

구약에서 이방인에 대한 뜻은 히브리어 ‘게르’라고 표현되어 있다. ‘게르’의 본래의 뜻은 ‘고향과 친척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구약에서 ‘게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우거한 자’, ‘우거하는 타국인’, ‘우거하는 이방인’, ‘나그네’, ‘이방 나그네’등으로 표현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현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뿌리에 그 민족적 기원을 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후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부패한 땅을 심판하셨지만,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지구상에 종족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창 9:18-19).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 역시 사래와 결혼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란에 얼마동안 거주한 이방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전에 하신 모든 언약을 새롭게 하심에도 불구하고(창 15장),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요,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방인으로 살아갈 것을 예언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창15:13). 이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사랑하시고 그들만의 구원자가 아닌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²⁹⁾

이는 아브라함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크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 주어졌다(창 12:3, 22:18). 하나님께서 결국 선교적

29) A. M. Wolters,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 역, (서울: IVP, 2009), 193.

사명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열국에서 분리하여 선택하신 것이다. 이 선택은 이스라엘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은 특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선택의 목적은 한마디로 이방의 구원, 선교에 있는 것이다.³⁰⁾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 직후 바로 히브리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출 12:49)라고 규정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공의에 대한 율법에 있어서도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에 대해 해를 끼치지 말 것을 경고하셨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이었음이니라”(출 22: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출 23:9)의 구절들이 바로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명령하신다. 자신들의 소작물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 즉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배려를 강조하신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는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 19:9-10).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레 19:33),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신 24:14)등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며,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형편과 상황을 잘 알 것이니 더욱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씀들과 더불어 이방인을 품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거하는 이방인’이나 ‘우거하는 타국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

30) 권오윤, *구약에서 본 이방인 선교정책*, (서울: 두란노서원, 2006), 32-35.

일하니라.”(출 12:49)는 말씀이다.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 배려가 익숙지 않은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겪은 외국인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이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과 비슷한 상황 속에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³¹⁾

나. 신약의 이해

구약에서 이방인을 ‘게르’로 표현하여 ‘고향과 친척을 떠난 사람들’이라 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이방인을 ‘파로이코스’(παροικος)라 하였는데, 이는 헬라어로 ‘고향을 떠난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셨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까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왕래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유대 땅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의 마을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이적을 베푸셨다.³²⁾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신 것이 좋은 예이다.

마가복음의 서두는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으로 갈릴리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 부분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진행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라는 말씀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은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알 수 있다.³³⁾

사도행전의 교회는 다문화의 특성을 가진 교회로 출발했다.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15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였고

31) 오태균, *다문화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교육적 과제*, (서울: 기독교교육정보, 2006), 193.

32) 전풍자,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2004), 37.

33) 성장환, “한국 내 여성결혼이주자 및 자녀의 현황과 기독교 교육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2011), 14-16.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 초대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성경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 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8~29)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퍼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도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이방인들을 위함을 확신하였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롬 11:13)라고 말한다.³⁴⁾

또 에베소서 2장 16절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동안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 부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자신이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이방인을 위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복음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의 좁은 시야를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까지 선교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것을 통해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차별 없이 돕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 안에 거하여 함을 알 수 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태도는 한결같으셨고 더 많이 보살피셨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맺은 신뢰의 관계이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무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살아 계신 하나님과 맺은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행동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³⁵⁾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역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4) 오태균, *다문화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교육적 과제*, 195-197.

35) 박상진, *가정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목적 :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89.

2. 성경 속의 다문화가정 발생 원인

가. 자발적 이주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창 12:1) 따라 보이지 않는 땅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한다. 아브람의 이런 삶은 믿음과 순종에 근거한 자발적인 이주로 볼 수 있다.³⁶⁾ 성경에서 대규모의 이주가 나타나는 장면은, 애굽에서 약 400년간 노예에서의 출애굽이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주 역사는 위기에 처한 그들의 애타는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다.(출 2:23)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무수한 잡족들도 자발적으로 대 이주의 역사에 함께 하게 된다.

나. 경제적 이주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주의 일반적 원인은 경제적 문제이다.³⁷⁾ 특별히 고대사회에서 '기근'이 이주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살게 하신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기름진 땅 애굽으로 살기 위해 내려갔다.(창 12:10) 창세기 26장 3절에서는 이삭의 이주를 볼 수 있다.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도 흉년의 때를 만나 이주해야만 했다.³⁸⁾ 야곱의 가족들도 기근을 피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 정착했다.(창 46:1이하) 룯기 1장에서는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이 든 베들레헴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이유 때문에 타국으로 이주하는 예들을 성경에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다. 정치적 이주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정치적 동기가 이주의 주요한 원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다.³⁹⁾ 북이스라엘이 앓수르에 멸망당하자 수많은 전쟁난민이 발생하게 되었다. 열

36) 김이곤, *창세기*, (서울: 전망사, 1993), 4

37) G. Von Rad, *국제성서 주석 창세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81.

38) Leon Wood, *이스라엘의 역사*,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81.

39) 한동구, "나그네에 대한 구약 성경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년 제2집, 292-293.

왕기하 17장 6절에서 보여주듯이, 멸망당한 수천 명의 북이스라엘 백성(주로 상류계층)은 메소포타미아와 메대로 강제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다. 이후, 이들은 다른 이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적으로 많은 원주민들에게 흡수되기 시작했다. 반면에 바벨로니아, 바벨론성, 바벨로니아의 성읍인 구다, 북부 시리아의 하맛 등에서 온 이방인 상류 계층들은 사마리아 속주에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남아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화되기도 했다.

3.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 사역의 원리

앞서, 다문화 가정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 사역을 할 때 성경적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구약에서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지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구원이라는 넓은 목적을 가지고 그를 선택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셨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까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유대 땅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의 마을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이적을 베푸셨다.⁴⁰⁾ 이것을 현 시대에 적용하면, 다문화 가정을 향한 기본적인 전제는 그들 역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란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문화 사역의 첫째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편견 없는 마음”이다. 한국은 워낙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로서 존립해 왔기에, 타 민족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현재 한국교회 내의 구성원들도 그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럴 때, 다문화 사역을 꿈꾸는 지역교회의 구성원들은 먼저 “편견 없는 마음”으로 다문화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구약과 신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다문화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0) 진봉자,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2004), 37.

둘째,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명령하신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신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는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 19:9-10).”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 곧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배려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은 현 시대 다문화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을 바라볼 때, “공흔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아무리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그들 역시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이방인을 무조건 품기만 하라고 하시진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출애굽기 12장 4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출 12:49).” 이것은 ‘우거하는 이방인’이나 ‘우거하는 타국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동일하게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다문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무조건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문화 사역의 원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방인을 향한 사역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나온다. 마가복음의 서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으로 갈릴리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중간 부분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으로 할애되고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⁴¹⁾

41) 성장환, “한국 내 여성결혼이주자 및 자녀의 현황과 기독교 교육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즉, 다문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 영혼을 진도하려는 구령의 열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제 3 장

다문화 가정의 실태

본 장에서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만 다문화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사역을 위한 목회적인 원리도 고찰하게 될 것이다.

제 1 절 국내 다문화 가정 현황

최근에 와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국내에서 다문화 가정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어떤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결혼 이주여성의 증가

가. 국내적 원인

여성이 결혼을 통하여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개인 당사자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나라별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남인숙의 말을 빌리자면, “전 지구적 자본주의 국가 간의 불균형적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인력 송출국과 유입국의 사회적 부정,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적극적 활동”⁴²⁾ 등 다양

42) 남인숙 외,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출신국 문화이해”, *사회이론*, 한국사회이론학회 2009년 봄/여름 제35호, 2.

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국제결혼은 주로 해당 국가의 경제적 빈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해당 국에서는 한국의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국제결혼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우리 내부의 요인과 상황이 있다.

첫째는, 유교적인 문화에 의한 혈통주의의 영향이다. 가문의 대를 잇고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아들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결국 왜곡된 성 비례를 초래하여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현재 남성 내 여성의 비율은 116:100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 남성의 불균형적 구성비가 그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는, 고학력 독신 여성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여성의 결혼을 당연시하던 전통적인 결혼관이 바뀌어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여기고 자아성취를 꾀하는 여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신 여성의 증가는 결혼 적령기의 남성들에게 적절한 배우자를 찾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들의 결혼관은 시대가 바뀌며 크게 변화되었지만 남성들은 아직도 결혼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셋째는, 사회 양극화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이다. 1990년대의 IMF 외환 위기는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도시빈민층을 만들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실직하고 비정규직으로 떨어지면서 경제적 여건이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한국여성과 결혼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총각들이 제 3세계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한다. 외국인 여성과는 값싸게 결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데 보통 5천만원 이상이 들고 있지만, 제 3세계의 여성과 결혼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난다.⁴³⁾

넷째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난립과 성행이다.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들 “베트남 슷처녀”, “초혼 재혼 상관없음, 나이 상관없음, 장애인 가능” 등은 돈을 매개로 한 인신매매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국내 노총각

43) 박찬식 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회, 2006), 227.

들을 구제한다는 이유로 용인되는 실정이다. 통일교에서는 국제결혼을 공공연하게 종교를 전파하고 있고, 이슬람권에서도 이슬람화를 위해 결혼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⁴⁴⁾

다섯째는, 국제화 정보화 등에 따른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경험했고 젊은이들도 조기유학, 언어연수, 문화체험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외국에서 생활하므로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된 사고와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은 공간의 한계를 사라지게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목주의 시대가 열리고, 국경과 민족의 개념이 없어지며 적극적인 교류가 가능해져 이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 요소가 되고 있다.

나. 결혼이주여성의 능동적 선택⁴⁵⁾

(1) 한류(韓流) 열풍의 환상

1990년대부터 동남아에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풍이 시작되었다. 영화, TV드라마, 가요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제품까지 중국·대만·홍콩·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으로 수출되며 한국 자체에 애정을 느껴 한국제품을 사거나 한국어를 익히려는 젊은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44) 이 글은 2004년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교육장에서 이주여성인권센터주최로 열린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이주의 여성화 한 유형,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 사회학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한국염(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5) Eunsook Lee Zelfelder,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족*, (서울: 양서원, 2007), 100-101. 저자는 평택대학교 교수로 책에서 다음과 같이 국제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한다. “첫째 경제적인 빈곤(Low Economic Status): 경제적인 빈곤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고자 할 때, 둘째 기존 사회로부터의 거부성(Outcasts): 기존 사회에서 출신 배경이 낮거나 과거의 전적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때, 그 사회로부터 설 자리가 적고 희망이 적을 때 돌파구로서, 셋째 부모나 이성에 대한 보복감(Rebels):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이성에게 받은 배반감에 대한 피신처로, 넷째 새로운 사람이나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Adventures): 영화나 다른 경험을 토대로 막연하게 외국인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으로, 다섯째 사회적인 불안정한 상태(Social Unatable): 사회 기준에 맞추어 아내감으로 부족하고 결혼에 대한 욕망은 강할 때, 여섯째 그 문화나 나라에서 탈출하거나 도망치고 싶은 자(Escapists): 자기 나라의 문화, 가치관, 습관 등이 본인에게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다른 문화권의 상대를 만났을 때, 일곱째 독립형(Mavericks): 자기의 독립적인 삶을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도하고 싶을 때, 여덟째 사랑(Love):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국경을 떠나 어느 한 사람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임이 확실하고 사랑의 감정이 강하게 느껴질 때”라고 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을 선택한 여성들은 대부분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 속의 부유한 가정을 기대하며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 결혼을 하면 한국 드라마나 연속극 중의 생활을 본인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가정과 친구를 떠나 올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한국 남자를 통해 현지보다 더욱 좋은 삶을 위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주를 오는 이민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특히, 그렇게 오게 된 많은 여성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찾아지고 있다.

(2) 계층상승에 대한 열망

만성적 빈곤에 시달리는 저개발국 여성들에게 이주결혼은 비상구이며 희망이다. 이들이 자신의 조국을 떠나 사랑이 전체가 되지 않은 모험이나 다름없는 이주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난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취업 이주를 하려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가능하지만 결혼이주는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다. 결혼하여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취직하여 친정에 얼마 정도의 돈을 보내줄 수 있다. 여성들은 각자의 합리적 기준 속에서 국제결혼과 남편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계층 상승에 대한 열망은 국제적 맥락에서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이주했기 때문에 자국의 현실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을 놓고 살펴본다면, 유입국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그들은 한국에서도 최하위 계층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 중 대다수는 본인들의 국가에 비해 너무나 높은 한국의 물가와 턱없이 부족한 남편의 수입으로 한국의 경제적인 풍요 이면에 가려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표 4>는 결혼이주자가 현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를 표로 만든 것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성이 현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는 배우자를 사랑한 경우는 28.2퍼센트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71.8퍼센트의 여러 이유들 중 경제적인 이유가 총 26.3퍼센트로 본국에 경제적 지원이나, 부유한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혹은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였다.

<표 4> 결혼이주자가 현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⁴⁶⁾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배우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309	28.2
특별한 이유 없음	171	15.6
본국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141	12.9
종교적인 이유로	141	12.9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국에 살기 위해서	121	11.0
가정과 친척들의 권유로	55	5.0
무조건 본국을 떠나고 싶어서	49	4.5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26	2.4
한국인으로 귀화하려고	15	1.4
기타	68	6.2
계	1,096	100.0

2. 다문화가정의 유형과 분포

1990년대 세계화가 가속화 되면서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외국인의 출입 증가로 현재, 한국 내의 다문화 가정의 증가 속도는 놀라울 정도이다. <표 5>는 국가통계포털에서 2006년의 총계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결혼이주자 현황을 분석해서 비교해 보았다.

<표 5> 결혼이주자 현황⁴⁷⁾

연도	2006년	2012년	2013년	2014년
남자	9,835	20,887	21,953	22,632
여자	55,408	126,704	127,811	126,533
총계	65,243	147,591	149,764	149,165

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복지 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08), 322.47) 통계청, “주제별 통계(인구·가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위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대략 10년 사이에 결혼이주자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결혼 이주자 중 대다수가 법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자는 혼인신고를 한 뒤 2년간 '국민의 배우자(F2)'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귀화 신청을 한 뒤 국적 취득까지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 이후 4-5년 정도 걸려야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었다. 국적을 미 취득한 이 기간 동안은 신분이 불안정하여 은행거래, 취업 등 생활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국내에 F2 자격으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7만여 명이다.⁴⁸⁾ 정부는 앞으로는 결혼이민자가 F2 자격으로 거주하는 기간을 없애거나 1년 정도로 줄이는 대신 영주권(F5)을 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귀화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표 6>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이주자의 국적별 현황을 표로 보여주고 있다.

<표 6> 결혼이주자 국적별 현황⁴⁹⁾

구분	조선족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태국	캄보디아	기타	총계
계	24,604	36,059	39,725	11,052	12,603	2,394	2,675	4,618	17,264	150,994
비율 (%)	16.3	23.9	26.3	7.3	8.3	1.6	1.8	3.1	11.4	100

<표 6>에 있는 결혼 이주자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출신이 23.9퍼센트, 베트남 등 동남아 출신이 약 32퍼센트로 출신 국가가 개발도상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결혼이주자들의 성별은 2014년 기준으로 대다수인 84.8퍼센트가 여성이다.

특히 조선족은 서울의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등에 거주하며, 경기도에서는 안산, 수원, 성남 등에 집단적으로 거주한다.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자들은 주로 경기도 화성, 안산, 시흥, 김포와 인천의 남동구, 경남의 김해, 충남의 천안 등에 거주하고 있다.⁵⁰⁾ 또한 <표 7>은 결혼이주자의 지역별 체류 현황을 표로 나타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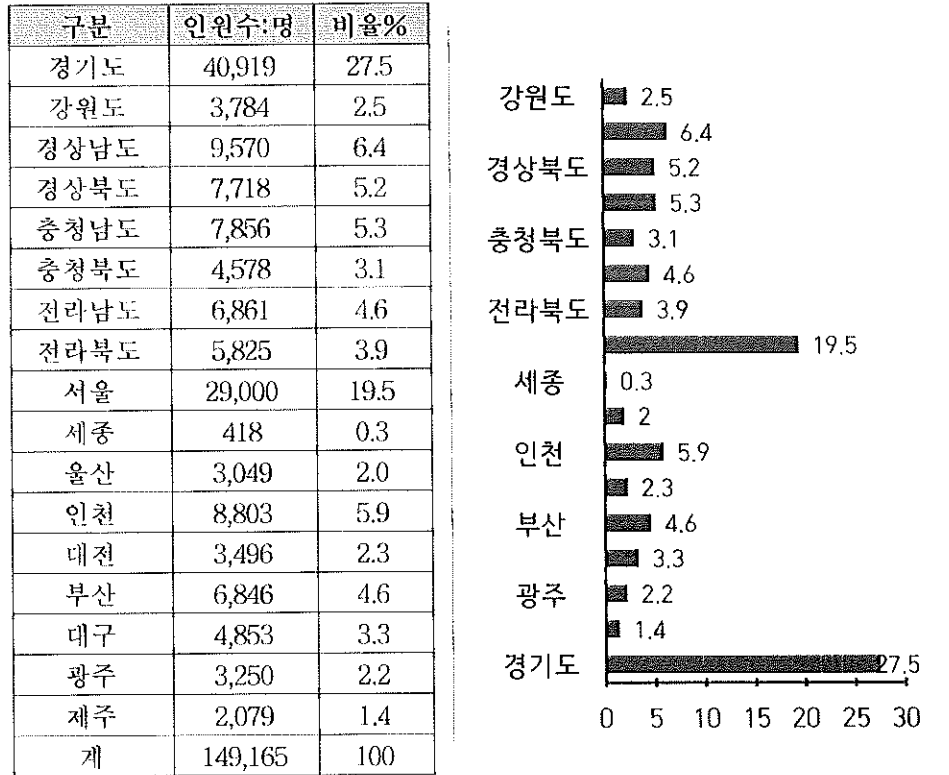
48) 최창봉, “결혼이민자 일정기간 영주권 준 뒤 귀화 허용”, 동아일보, 2011년 01월 15일

4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50) 조석주 외,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있다.

<표 7> 결혼이주자 지역별 채류 현황⁵¹⁾



위 그래프를 보면, 전국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의 약 27 퍼센트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수가 많다는 뜻이다. 조금 더 확장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살펴보면 총 78,722명으로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5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농촌에서 다문화가정은 더는 낮은 모습이 아니다. 2012년에 결혼한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 결혼한 비율은 평균 6.3%이지만, 이를 농림어업 종사자로 한정하면 그 비율이 26%에 이른다. 농림어업 종사자 4명 중 1명은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룬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은 1만 4952호(6만7040명)에 이른다.⁵²⁾

25.

5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그래서 인구밀도에 따른 분포를 생각해 보았을 때 농촌은 “다문화 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미 고령화 되어 있는 한국의 농촌은 2008년 기준 국내 여성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2세이며 39세 이하 젊은 여성농업인은 2.8%에 불과하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여성결혼이민자의 70퍼센트 이상이 35세 미만이고 50퍼센트 이상이 고졸 학력 이상이라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 인력으로 손색이 없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0년 2월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1만명을 여성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⁵³⁾

제 2 절 다문화 가정의 문제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문화적인 환경과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들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그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교회에서 어떻게 다문화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도 찾아보고자 한다.

1. 사회적인 문제

가. 문화차별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들은 우리의 말과 문화를 익히는 과정에서, 결혼 후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름을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한 채 차가운 시선 속에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단일민족, 순혈주의 이념에 뿌리박은 자민족중심주의와 인종차별주의, 문화우월주의가 이들로 하여금 ‘서러운 타국 땅’에서 소수자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⁵⁴⁾

52) 서훈, “[창간 50주년 특집]한국농업 미래 50년 전망-농촌”, 농민신문, 2014년 08월 15일

53) 최상구, “2011년 농정이슈 (5)다문화가정”, 농민신문, 2011년 05월 09일

54) 안경식 외,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학지사, 2008), 39.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로 구성되어 외국인에 대한 관용의식이 낮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 혈통에 기반을 둔 민족개념을 신봉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이 정착하여 단일민족의 신화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도 소위 경제 선진 국가 출신 백인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이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경향이 강한 점에서 천민의식과 인종, 국가, 피부색에 따른 차별의식이 많다.⁵⁵⁾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은 순혈주의에 입격한 차별적 용어라 할 수 있는 ‘혼혈아’나 ‘튀기’라는 명칭에 대해 매우 강렬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 애초에 선의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코시안’, ‘온누리안’이란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도 이들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성원들이 겪고 있는 편견과 차별, 그로인한 피해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들을 향한 ‘차별적 시각’이나 ‘특별한 대우’ 모두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나. 소외와 갈등으로 인한 문제

다문화 배경의 사회 성원들은 한국에 건너와 살면서 우선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이들 이주민들은 결혼을 통해 맺은 가족관계와 가족생활 가운데 빚어지는 다양한 도전을 생소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들은 문화적 보수성이 농후하고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한국인과 한국 사회로부터 수용 받거나 존중받지 못한 채 가정과 이웃, 학교, 직장에서 무시당하거나 차별당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집단,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다문화 구성원들이 한국의 또 다른 소외계층, 또 다른 부적응 집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조사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10퍼센트가 초등학교 때, 18퍼센트가 중학교 때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 일반 학생들

55) 김영란,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2006년 제45집 1호, 170-171.

의 중퇴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을 보면 이들의 교육적 소외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제적 지위 역시 열악하여 22퍼센트가 실업상태에 있다. 취업자의 경우 2퍼센트만이 사무직에 종사하며 나머지 대다수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 내 약자들인 이들 다문화 성원에 대한 멸시와 차별은 개인적 차원의 부적응과 소외 문제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충돌을 빚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억눌린 자들의 위축감과 박탈감, 좌절감, 피해의식이 증폭되어 인종 간, 문화 간 갈등이나 반목을 심화시키고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해외로 부터 엄청난 규모의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 탈북 이주민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언제까지나 이들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자 주변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들이 수적으로나 영향력으로도 무시하지 못할 집단으로 성장할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대부분이 유, 소년기에 있어 불만이나 분노의 표출이 그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10년 후쯤에는 우리 사회가 엄청난 홍역을 치를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에 따른 소외와 부적응이 고착되고 이들을 향한 이해, 관용,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한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비용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 경고되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을 멸시받고 차별받는 열등 시민이 존재하는 한 한국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고 사회적 기반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다문화 시대의 사회적 성숙도는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수 집단을 다원적,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며 품격 있는 통합의 문화로 승화시켜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역량에 의해 평가된다. ‘우리 안의 세계’와 더불어 조화와 상생의 공존을 이루어가는 현명한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와해와 사회 통합 저해의 화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찌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소수 집단과 기존의 다수 주류 집단 간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갈등자체의 출현이나 소멸이 아니라 그것을 평화적인 형태로 표

출시켜 사회 발전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다문화 포용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하겠다.⁵⁶⁾

다. 신분상의 불안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의한 인력수급전망을 보면, 2015년에는 63만 명, 2020년에는 152만 명의 노동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도 작업현장이 좋지 못한 3D⁵⁷⁾에는 종사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짐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을 모두 합치면 이수치의 몇 배가 된다는 것이 노동연구원의 판단이다. 결국, 이 부족한 자리는 이주 노동자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 또한 유엔보고서도 한국이 현재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려면 2030-50년에 이주 노동자 150만 명을 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것이 이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장 큰 불안의 요인도 신분상의 불이익과 불안함에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당하게 될 경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신분이므로 외국인 배우자로서 체류 자격은 상실하게 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만다.⁵⁸⁾ 이처럼 불법체류자는 모든 행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리에서 불심검문과 출입국관리소의 현장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불안한 날을 보내야 한다. 또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고용주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이것이 악덕 고용주에게는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불리한 신분 때문에 법적인 보호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

2. 부부관계 상의 문제

가. 언어소통

56) 안경식 외,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42-45.

57) 3D란, 위험하고(danger), 어렵고(difficult), 더러운(dirty) 직업을 의미하는 말이다.

58) 이성수,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선교” (박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2008), 25.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 10명 가운데 8명이 한국어를 모른 채 결혼하며,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주자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미리 한국말을 익히거나 한국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이주자들은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언어 소통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⁵⁹⁾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가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물며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⁶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 조작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작업장에서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 몸이 아픈 이주자가 병원에 갔을 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 답답해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⁶¹⁾

언어소통의 문제는 가정의 불화만이 아닌 사회적 고립을 가져오는 큰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결혼 이주자들이 결혼할 때 특히 결혼 중매업소를 통해 결혼이 성립될 때 맞선 본 후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이 한국 및 한국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습득 없이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인해 가족 및 주변사람과의 의사소통이 힘들다. 이로 인해 남편 및 시집식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결혼이주자 지원 단체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보편되어 있어 의사소통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의 나라는 지역 내에서 통역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들의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⁶²⁾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한국 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문제(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직장에서 무시, 조롱,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자신의 한국어 실력 부족과 그로 인한 주의 사람들의 오해 때문인 것으로 여기고 있어 언어의 문제가 차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⁶³⁾ 또한 가족과의 대화와 자녀 교육의 어려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들은

59) 안경식 외 공저,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28-29.

60) 이석형,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신학과 목회*, 2008년 제30집, 372.

61) 안경식 외 공저,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29.

62) 박기관, “다문화시대 결혼이주자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98-99.

63) 안경식 외 공저,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29.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서비스로 '한국어 교육'을 지목하였다.⁶⁴⁾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교육이 실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많은 데 비해 한국어교사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충당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자원봉사 교사의 경우 전문적 훈련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학기를 꾸준히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잦아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은 그들이 한국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황을 수업 내용으로 구성하고 그에 맞는 교재와 부교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전문가가 충원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도 필요하다.⁶⁵⁾

나. 주거 및 경제생활⁶⁶⁾

2012년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부부의 집 소유 형태를 보면, 전·월세의 비율이 53.2퍼센트이며, 자기 집은 42.2퍼센트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의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도시 지역인 동 지역과 농촌 지역인 읍·면 지역을 비교해 보면, 농촌 지역의 자가 소유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도시는 전·월세 거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은 거주 지역별 집 소유 형태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8> 거주 지역별 집 소유 형태⁶⁷⁾

(단위: %)

64) 김은미, 양옥경, 이해영, *다문화사회*, 한국, 139-158.

65) Ibid., 209-210.

66) 김제선, “다문화가정 사역을 통한 교회성장 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0), 83-90.

67) 통계청, “다문화가족의 주택 점유 형태(2012년)”,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구 분	자기집	전·월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계
전체	42.2	24.7	26.7	1.8	4.6	100
동지역	35.8	28.8	30.3	1.5	3.6	100
읍·면지역	64.2	10.6	14.3	3	7.9	100

연령별 집 소유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표 9>을 보면, 연령별로는 다문화가정의 전·월세 비율이 30대(30~34세 기준)가 51.2퍼센트, 40대가 61.9퍼센트, 50대가 71.6퍼센트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월세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기집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9> 연령별 집 소유 형태⁶⁸⁾

(단위: %)

구 분	자기집	전·월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계
24세 이하	58.3	17.9	15.7	1.8	6.3	100
25-29세	50.1	23.3	18.7	1.9	6	100
30-34세	44.3	24	25.6	1.2	4.9	100
35-39세	43.9	26.2	24.3	1.9	3.7	100
40-49세	35.8	27.2	33.1	1.6	2.6	100
50세 이상	28.2	27.5	36.5	3.1	4.8	100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의 가구 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빈곤층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거주 지역별 평균 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표 10> 거주 지역 평균 소득⁶⁹⁾

(단위: %)

68) Ibid.

69) 통계청, “다문화가족의 월평균가구소득별 분포(2012년)”,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구 분	50미 만	50-10 0	100-2 00	200-3 00	300-4 00	400-5 00	500-6 00	600 70 0	700 이상	계
전체	3.7	7.3	30.9	31.4	15.7	5.1	2.3	1.1	2.4	100
동지역	3.9	7	29.9	31	16.3	5.4	2.5	1.3	2.7	100
읍·면지 역	3.1	8.5	34.5	32.9	13.6	4.3	1.4	0.4	1.2	100

거주 지역 평균 소득을 담고 있는 <표 10>을 보면, 거주 지역 평균 소득월평균 가구 소득 100-200만원 미만과 200-300 미만이 각각 30.9퍼센트와 31.4퍼센트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0-400만원 미만이 15.7퍼센트이다.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1.9퍼센트이다. 이에 비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5.8퍼센트에 불과하다. 한국 도시 가구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인 4,174,197원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⁷⁰⁾ 이는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거주 지역별 통계를 보면, 다문화가정의 가구 소득이 읍·면지역보다 동 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11>에 나와 있는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별 현재 삶의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만족'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불만족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불만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별 현재의 삶의 대한 만족도⁷¹⁾

(단위 : %)

구 분	현재 삶의 만족도					계(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22.6	28.5	41	6	1.9	100
동 지역	21.7	28.5	41.4	6.3	2	100
읍·면지역	25.9	28.4	39.2	4.9	1.6	100

70) 2009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728,547원, 근로자 평균 소득:4,174,197원

71) 통계청,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2012년)", <http://kosis.kr/wsearch/totalSearch.jsp>.

다. 자녀 교육

<표 12>에 나와 있는, 다문화가정의 거주 지역별로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양육비 혹은 교육비 지출(학원비 마련)이 49.6퍼센트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한국어 가르치기에 대한 것으로 25.6퍼센트, 자녀를 돌봐줄 시설이 없어서 힘들다는 의견이 11.2퍼센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이나 동 지역 모두 양육비와 교육비 마련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반면, 읍·면 지역에서 한국어 가르치기에 대한 어려움이 30.7퍼센트로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12> 다문화가정 자녀양육의 어려움⁷²⁾

(단위 : %)

구분	어려움 없음	자녀양육 방식을 둘러싼 배우자(또는 배우자 가족)와의 갈등	한국어 가르치기 어려움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 또는 보육시설이 없음	양육비, 교육비 지출	학업 성적 부진 또는 학교 생활 부적응	자녀의 건강, 행동의 문제	한쪽이든 부모가 외국출신이라는 점으로 인한 자녀의 심리 혼란	기타
전체	50.7	6.4	25.6	11.2	49.6	4.2	5.6	2.3	2.6
동지역	49.4	6.2	22.9	11.7	49.1	3.8	4.4	2.5	2.5
읍·면 지역	53.1	7	30.7	10.5	50.7	4.9	7.7	1.9	2.8

한편, 다문화가정에서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요구를 표로 보여주고 있는 <표 13>을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26.5퍼센트,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16.7퍼센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동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및 지원 요구⁷³⁾

72) 통계청,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의 어려움(2012년)”,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73) 통계청,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지원요구: 학습지원(2012년)”, <http://kosis.kr/wnsea>

(단위 : %)

구 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
진 체	30.7	5.6	20.5	16.7	26.5	100
동지역	32.8	6	19.9	16.5	24.9	100
읍·면지역	24.6	4.7	22.2	17.5	31	100

3. 자녀들의 문제

가.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아동학대는 9년 새 2.7배나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 학대를 하는 사람의 83.3퍼센트가 부모이며 친인척이 6.8퍼센트로 나타났다. 타인에 의한 아동학대보다 부모나 친인척을 통한 아동학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7-15세 사이의 아동들이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와 중앙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2009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해 드러났는데, 학대받은 아동은 5,685명으로 2001년 2,105명보다 2.7 배가량 늘어났다. 신고 건수는 2001년 4,133건 보다 2.3배 늘어난 9,308건이었다.

나. 집단 따돌림

현재 한국 사회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다인종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차원의 세심한 교육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녀의 경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잘난 척 해서'(29.4%)인 반면에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그 성격상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또한 이 때문에 정서적 충격으로 자살 충동, 적개심 등을 경험하게 된다.⁷⁴⁾ <표 14>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rch/totalSearch.jsp.

74) 조영달,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연구과제, 8

<표 14>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유⁷⁵⁾

(단위 : %)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유	비율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20.0
특별한 이유 없이	34.0
의사소통이 잘 안되서	15.0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0
외모가 달라서	4.0
기타	22.0

<표 14>에서 나타나듯이, 다문화가장의 자녀들의 많은 수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받는 상처의 주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주변 친구들의 놀림이나 차별적인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특징적인 외모나 말투, 우리와 다르게 가지고 있는 이름 등의 이유이다.

또한 한국과 다른 이주배경을 가진 부모에 대해 자긍심이 부족한 또래 아이들로부터 쉽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출신배경을 통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 다인종사회를 경험한 국가들에서는 다인종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찍 이러한 자신의 인종적인 유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경우 학교생활이나 단체생활을 시작하고 사춘기를 거쳐 청소년기가 되면서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보낸다는 보고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동들이 인종, 민족적인 정체성, 그리고 인종 민족적인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미 어린 시절 발달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⁷⁶⁾

다인종적 배경을 가진 아동에게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속하게 될 공동체와의 통합을 복잡하게 하는 내면적 세계가 있다. 즉, 아동인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인종적, 문화적 유산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체성을 발달시켜야 한다.

75) 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2005), 135.

76) 조영달,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8-9.

인종분제로 학교와 같은 단체생활에서 해당 구성원이 상처를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상처를 받을 지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형성 과정에서 타협적인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고 교사는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건강한 다문화 경험을 통해 존중과 이해를 형성하게 되고 다양한 문화를 통해 더욱 성숙한 교육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취학 전 교육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일반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지역사회에 맞는 적극적인 시민문화 인권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다인종적 아동들에 대해 이들이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적인 투자가 필요하다.⁷⁷⁾

다. 균등한 교육 기회의 상실

헌법 제 6조 제 2항 및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UN, 1991)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는 한국 아동과 동일한 교육 기본권을 가진다. 불법 체류자 자녀의 경우에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UN 아동 권리 위원회 따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은 1997년 개정된 국적법 제 2조 제 1항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헌법 제 31조에 의해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녀가 만 7-12세이면 2003년부터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 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개발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정에서는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 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최종 입학 결정은 학칙과 학교장의 재량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실제 입학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⁷⁸⁾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표 15>은 일반 가정 학생 및 다문화가정

77) 김혜정,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 68-69.

78) 황범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정책 분석” (박사학위 논문, 안양대학교 대학원, 2007), 71.

학생 탈 학교율 추정을 표로 만든 것이다.

<표 15> 일반 가정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탈 학교율 추정⁷⁹⁾

(단위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가정 학생 미취학율	0.7	4	8.7
다문화가정 아동 미취학율	15.4	39.7	69.6
한국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아동 미취학 비율	22배	9.9배	8배

라. 중도 입국 이주청소년들

학교 교육기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도 입국 이주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어를 못하다보니, 정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들을 위한 정식 대안학교도 없는 실정이어서, 학교에 가야 할 이들 청소년들은 시민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⁸⁰⁾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는 다른 방법의 접근과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중도 입국 이주청소년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은 크게 다섯 가지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⁸¹⁾ 첫째,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에 따른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둘째,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후 현지에 있는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이다. 셋째, 결혼 이민자가 국내입국 후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현지의 자녀를 한국인 자녀로 입양하여 초청하는 경우이다. 넷째, 국적회복을 한 동포 1세의 3세가 2세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경우이다. <표 16>은 2010년 3월 기준으로 중도 입국 이주청소년의 재학율 현황을 작성한 것이다.)

79) 원희목,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www.hopetree.or.kr>

80) 이재분, “한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현황 및 과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실천 방안 모색*, 2010.

81) 아시아 이주문화 공간 오늘, <http://immigrant.tistory.com>.

<표 16> 중도 입국 이주청소년 재학율 현황(2010년 3월)⁸²⁾

(단위 : %, 명)

구분	진국			
	계	초	중	고
대상 학생 수	982	365	221	369
재학 아동 수	464	220	123	121
재학율(%)	47.2	60.2	55.6	30.5

4.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 사역의 과제

앞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사실, 이것은 지역교회가 다문화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교회에서 어떤 형태의 다문화 사역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회적인 과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해야 한다. 현재 국내 다문화 가정의 중의 대다수는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들어왔다. 곧, 그들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한국에 들어온 결혼 이주여성들의 상당수는 비자 문제 때문에 늘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 다문화 사역을 하는 교회는 바로 이 점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무턱대고 복음만을 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런 상황들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곧, 선교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사회적인 문제, 둘째는 부부의 문제, 셋째는 자녀의 문제이다. 사회적으로 그들은 신분의 불안과 문화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둘째, 다문화 사역의 주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앞선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 가정의 주 대상은 결혼이주여성들이다. 특히, 읍·면 지역일수록 결혼이주여성들로 형성된 다문화 가정이 거의 대다수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82) Ibid.

다문화 가정 사역을 할 때, 1차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들이 겪는 문화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두루 살펴보면서 사역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교회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을 대할 때, 늘 따뜻하고 차별이 없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은 부부 간에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 지역교회가 “한글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의 자녀들 중 상당수가 따돌림이나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 지역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육이나 설교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도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 대다수가 외로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지만, 이럴수록 지역교회가 더욱 본질적인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욱 크신 분이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에 귀기울여주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그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제 4 장

지역 교회의 다문화 사역 실례

본 장에서는 국내 다문화 가정 사역의 실례를 이천·광주·여주 지역으로 범위를 좁혀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 교회들이 어떻게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앞서 살폈던 다문화 사역의 성경적·목회적인 원리를 근거로 이들 사역의 장·단점도 평가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가 효과적인 다문화 사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지역 교회의 다문화 사역 실례

본 절에서는 이천·광주·여주 지역의 교회들 중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언급할 것은, 세상의 빛 선교 교회에 대한 부분이다. 세상의 빛 선교 교회는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 중심⁸³⁾으로 사역을 시작했으나, 이후에는 다문화 가정으로 사역 범위를 넓혀서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사례 연구에 포함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이들 사역의 장점과 단점을 앞서 살폈던 신학적인 근거와 목회적인 근거를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83) 외국인 노동자 사역과 다문화 가정 사역은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정의를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다. 즉, 외국인 노동자 사역은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보니 이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문화 가정 사역은 다문화 가정의 문제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다.

1. 세상의 빛 선교 교회(LEMC)

가. 세상의 빛 선교 교회(LEMC) 소개와 사역 현황⁸⁴⁾

세상의 빛 선교 교회(예장 통합, Light on Earth Mission Church, 이하 LEMC라 칭함)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교육하며 훈련시킴으로 그들을 통한 세계선교를 이루어 간다.”는 설립 목적을 갖고, 2000년 5월 이현성 목사⁸⁵⁾와 한국인 5명, 필리핀 13명이 경기도 광주의 한 기도원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교회의 목표는 5가지이다: 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교제), ② 교육하고 배우는 공동체(성장), ③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섬김), ④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선교), ⑤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는 공동체(예배).

현재는 이현성 목사와 한국인 봉사자 5명을 제외하고는 100여명의 외국인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⁸⁶⁾ LEMC의 교인들은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창기에는 나이지리아, 가나 등에서 온 사람들도 함께 했으나 지금은 필리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LEMC는 거의 ‘필리핀’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담임목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직분자들과 리더들이 필리핀 현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상당수의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사역의 범위도 다문화 가정으로 넓혀가고 있다.

나. 사역 내용 및 특징

(1) 조직 및 사역분담

LEMC의 구성원은 초창기에는 한국인 봉사자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교회 내의 모든 사역자들이 현지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한국 교회에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는 다른 교회와 선교단체들에 좋은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84) 교회 소개와 현황, 사역 내용 등 모든 정보는 교회 공식 사이트(<http://www.lemc.or.kr>)에 잘 나와 있다.

85) 이현성목사는 서울 장신,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알린선교사(필리핀 현지인)와 결혼하여 한 명의 딸을 두고 있다.

86) 매주일 예배는 적게는 40명, 많게는 6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영어로 드리며, 예배시간은 주일 오후 1시이다. 그 외의 정규적인 모임으로는 주일 오전과 저녁에 제자훈련 모임과 수요일(저녁 9시-11시) 성경공부와 토요일(8:30-10:30) 기도모임이 있다.

LEMC는 크게 세계의 공동체로 나뉜다. 먼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어지는 교회공동체, 이들을 돕기 위해 모인 한국인 활동가(봉사자) 공동체, 그리고 기도와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하시는 후원 공동체로 이루어진다.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는 문화/복지팀, 외국인 이주노동자 상담소, 현지 파송 선교팀이 있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의 중요 직책인 총무, 회계, 서기는 현지인 중 교회의 제자훈련 코스를 수료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매년 초에 있는 총회를 거쳐 교인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맡는다. 이는 기성교회의 장로와 같은 위치이다.

그리고 각 부서들(예배부, 선교부, 교육부, 음악부, 새신자부, 문화/홍보부, 복지/관리부)의 부서장들도 모두 현지인들로 제자훈련 코스를 수료한 자들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맡아서 일하고 있다. LEMC에서는 예배 진행에서부터 현금계수까지 모든 사역들이 현지인들이 주체가 되어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와 병행 기관으로 이주민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과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한 한글교육, 문화체험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제자훈련과 파송 사역

LEMC의 가장 큰 특징이 교회의 사역자들이 현지인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라면 그 다음으로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제자 훈련과 파송 사역이다. 제자훈련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이현성 목사가 기존의 성경공부 교재를 편집한 것을 갖고 영어로 교육하고 있으며, 이는 총 4단계로 약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에 걸쳐 교육을 하게 된다.⁸⁷⁾ 지금까지 6기 동안 28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따로 형식적인 파송식을 하지는 않지만 이 제자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은 교회의 비전에 맞게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현지로 돌아가서도 각 지역교회를 섬기며 가족들과 친족,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는 일들을 성실히 감당한

87) 교재는 릭 워렌 목사의 “Purposed Driven Life” 성경공부 교재를 편집/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사모님인 알린 선교사와 함께 지도하였으며 지금은 수료자들 중에서도 지도를 맡고 있다. 저녁 늦게까지 산업현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LEMC의 리더자들이 세워지고 있다.

다고 한다. 최근에도 필리핀 현지를 방문한 이현성 목사는 한국에서 LEMC를 출석하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60여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신앙집회를 가졌다. 현재 필리핀 현지에는 LEMC필리핀선교센터(까비떼 Cavite 지역)를 세워 그곳에서 신앙집회 등을 가지며 한국과의 네트워크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⁸⁸⁾

다. 평가

세상의 빛 선교 교회는 타 다문화 사역을 하는 교회와 달리, 필리핀 사람들에게 집중함으로써 사역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앞서 소개한 성경적인 원리와 목회적인 원리를 근거로 이들의 사역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들은 다문화 구성원들이 신앙의 주체가 되도록 힘썼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다문화 사역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앞서 본 연구자는 다문화 사역은 그저 그들을 품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구성원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LEMC는 그런 사역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사실, 다문화 가정을 혼란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는 일인데, 그들을 신앙의 주체로 세우고 나아가 다시금 자기네들 나라로 재파송하는 것은 LEMC가 얼마나 본질에 충실하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LEMC는 교회와 병행기관으로 이주민센터를 세워서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선교적인 사역도 잘 하고 있다. 실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상담과 한글교육, 문화체험 그리고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상담서비스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앞서 본 연구자는 다문화 사역을 하는 교회는 다문화 가정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었다. LEMC는 그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사역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 하다.

셋째, LEMC의 다문화 사역은 체계적인 사역 구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또 다른 장점이 있다. LEMC는 크게 세계의 공동체로 나뉘지는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교회공동체, 이들을 돕는 모임인 한국인 봉사자 공동체, 그리고 후원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사역적인 분담은 실상 다문화 사역을 잘 하는 교

88) <http://www.lemc.or.kr>를 참고하였다.

회에서 드리나는 특징인데, LEMC 역시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도 프로그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다문화 사역의 성경적인 원리 중 하나가 적극적인 구령의 열정이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LEMC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다문화 사역은 하지만, 다른 여러 국가들까지 품고 또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2. 장호원감리교회

가. 장호원감리교회 소개와 사역 현황

장호원에 위치한 장호원감리교회(기감)는 1900년 4월 5일 죽골 김마리아의 집에서 처음으로 설립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교회 이름이 죽골교회였다. 112년이라는 오랜 전통을 이어온 교회로서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국내외 선교를 힘껏 감당해 왔으며, 지역 사회의 계몽과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특히 인도네시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⁸⁹⁾

근래에 와서는 외국인예배 곧 다문화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으며, 담당교역자는 구인수 목사이다.

나. 사역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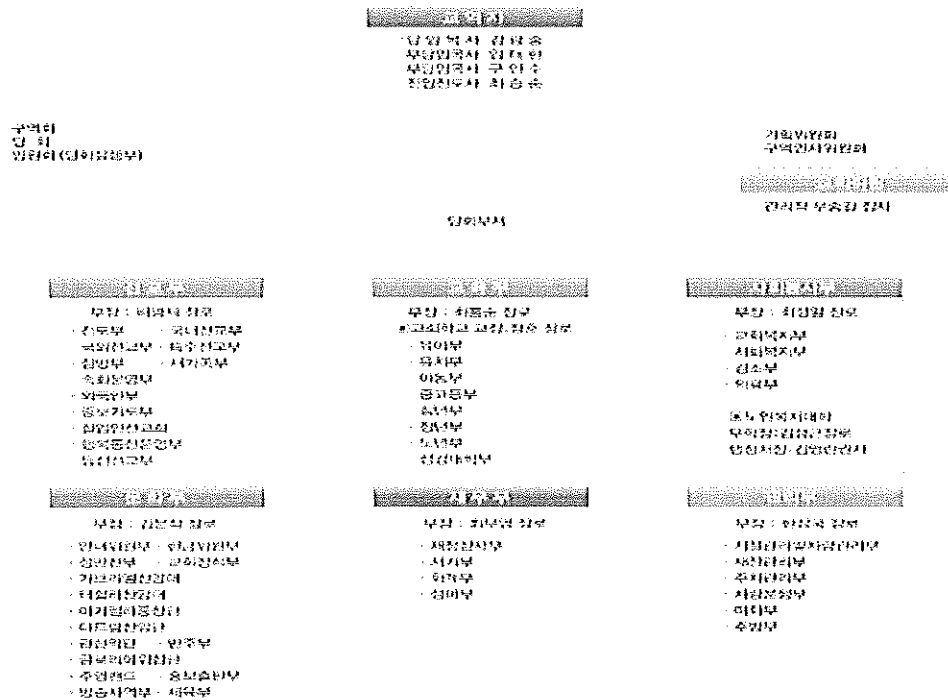
(1) 조직 및 사역분담

장호원감리교회의 선교를 총괄하는 선교부 산하에는 전도부, 국내선교부, 국외선교부, 특수선교부, 심방부, 새가족부, 속회운영부, 외국인부, 중보기도부, 실업인선교회, 행복동산운영부, 등산선교부 등이 있으며, 특히 다문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외국인부”이다. 이를 조직도로 구성해보면 아래와 같다.⁹⁰⁾

<그림 3> 장호원감리교회 전체 조직도

89) http://janghowon.or.kr/index.php?control=html&lm_uid=679의 교회연혁을 참고했다.

90) http://janghowon.or.kr/index.php?control=html&lm_uid=691에서 참고하였다.



장호원감리교회의 외국인 사역 곧 다문화 사역은 주로 이 “외국인부”에서 이루어진다. 현재는 구인수 목사가 담당자이며, 그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역이 다문화 사역의 대부분이다. 구인수 목사는 다문화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첫째는, 다문화 예배이며, 둘째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노방 찬양 전도과 세번인력시장 전도이다. 추후, 더욱 다양한 사역 계획을 갖고 있으나, 교회 형편상 현재는 두 사역을 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였다.⁹¹⁾

(2) 사역 배경

장호원감리교회의 다문화 사역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담임목사(김광중)의 목회적인 관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다문화 사역을 담당하는 구인수 목사는 초창기 다문화 사역 환경이 생각보다 좋지 못했다고 말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교인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교회가 좋아서나 예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나 차량을 빌리기 위해 혹은 교회를 통해서 개인 영어교습 학생을 수급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한다. 다

91) 2015년 7월 28일 장호원감리교회에서 이루어진 구인수 목사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부록에 구인수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음은 구인수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⁹²⁾

질문자 : 이전 관내에서 장호원감리교회가 유일하다고 들었다. 어떠신지?

구인수 목사 : 처음 예배는 약 열댓명이 모였다. 그때는 지금보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 처음에 장호원에 오니깐, 두 그룹이 있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이었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진 했었다. 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영어로 영적으로 컨트롤을 하진 않았고, 자기네들끼리의 모임 장소였다. 그들끼리의 소셜 커뮤니티였다. 차량을 빌려주고, 돈도 빌려주고, 에버랜드도 보내주고 했었다. 특히 권사님들이 용돈도 많이 줬었다. 아예 이들 중에는 성도님들과 연결해서 돈을 빌려가곤 했는데, 갚진 않았다. 처음에 그들이 자원으로 영어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붙잡아서 개인교습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것을 허용해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시역 방향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한 사람의 영혼구원을 위해서라면,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고, 그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목적을 두면,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니, 떠나가고 몇 명 남진 않지만 그 소수 중에는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

(3) 사역의 내용 및 특징

(가) 다문화예배

장호원감리교회의 다문화예배는 토요일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는 주일에 예배를 드렸으나, 사역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토요일로 옮겼다고 한다. 다음은 구인수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⁹³⁾

질문자 : 언제 다문화 예배를 드리는지?

구인수 목사 : 원래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보였는데, 저의 시간이 안 되니깐 어쩔 수 없었다. 만약 담임목사님이 외국인 부서만 섬기라고 하면, 주일 오전 9시에 모이고 싶다. 그래서 예배 후,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싶다. 진 이 사역을 겨우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사역적 필요 때문에 차량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 저녁 7시 예배로 바꿨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사역적 상황 때문에 그랬다. 만약,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 전도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 교회는 보수적이라 아직은 개방되어 있진 않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무실이 작게 있지만, 그다지 활용도가 높진 않다.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구인수 목사는 사역적 환경 때문에 주일예배에서 토요

92) 앞서 소개한 인터뷰에서 사역의 내용에 맞게 약간 편집하였음을 밝힌다.

93) 2015년 7월 28일 장호원감리교회에서 이루어진 구인수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일 예배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문화 사역이 전담으로 이루어질 때, 예배와 전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한 점이다. 그리고 현재 장호원감리교회의 다문화 예배는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다문화가정의 수가 많아지면, 중국어나 스리랑카어 등 다양한 언어로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구인수 목사는 처음에는 예배 전 찬양을 위해서 MP3로 찬양파일을 준비해서 들어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차츰, 영어 찬양에 익숙해지면서 본인이 직접 영어로 찬양 인도를 하였고 이때부터 다문화 가정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이 보였다고 고백한다. 설교는 한 구절, 한 구절씩 풀어가는 강해식 설교 형태,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주제식 설교 형태 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다고 한다.

(나)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반응

구인수 목사는 다문화 예배를 열고, 기존의 교인들도 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 중 대다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닌, 영어공부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한다. 다음은 구인수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⁹⁴⁾

질문자 : 예배에 참석한 기존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구인수 목사 : 교인들도 그렇다. 아까 얘기한 심김이가 아니라 대부분 영어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었다. 난 스텝을 원했지, 영어공부를 하려고 온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신한목자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공감하지 못했는데, 해보니 실제로 그랬다. 사실, 처음에는 좋았다. 숫자가 보여서. 그러나 그것은 실수였다. 2-3주 정도 지나서 여기가 나의 영역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목사를 제끼고 그들끼리 만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집에 초청해서 교제를 한다. 관리자 없이 영적 방향 없이 틀어져 나간다. 목사로서, 스피커를 갖다 달라 혹은 간식을 줌 갖다 달라고 해도 줌 있다가 갖다 주겠다 라고 말한다. 이유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료하게 외국인부에서는 스텝이 필요하지, 영어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필요없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확실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 마치 교회 개척할 때, 그 지역의 상황을 살핀 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저는 여기서 몇 번 쓰러지고 했다. 이 사역만이 아니라, 여러 사역들을 병행해야 했었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하다가 번역력이 떨어졌다.

(다) 리더 교육

94) 앞서 소개한 인터뷰에서 사역의 내용에 맞게 약간 편집하였음을 밝힌다.

현재, 장호원감리교회 다문화 사역에서 리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구인수 목사의 말을 빌리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리더 교육 교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일단 영어나 다른 언어로 기록된 교육 교재가 부실하고, 나아가 내용도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지도할 만한 교재가 없다는 것이다.

(라) 노방 전도와 새벽 인력시장 전도

장호원감리교회 다문화 사역의 핵심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전도 사역이다. 이것은 다시 둘로 나뉘었는데, 먼저는 밤에 길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며 자유롭게 전도하는 노방전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벽에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전도지를 나눠주는 새벽 인력시장 전도이다.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다문화 가정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인수 목사는 밤에 노방에서 거리 전도를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자신의 사역적 상황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며, 아울러 밤에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길거리로 나와서 세속의 문화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은 구인수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⁹⁵⁾

질문자 : 길거리 노방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구인수 목사 : 쉽지 않다. 시작한 지 약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장호원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외국인 나라에 대해서 대사관을 통해 정보를 구한 후, 전도지를 활용해서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소개이고, 아예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저도 현재 기타를 치면서 농협중앙회 근처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 힐송과 같은 CCM 단체들이 하는 노래들을 외워서 찬양을 하고 있다. 또한 1월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 행사도 기획하곤 했다.

이날, 찬양을 직접 영어로 인도하면서 다문화 가정 성도들이 울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 나가서 전도해라. 안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안에서는 밖에서 전도하기 위한 연습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복음주의자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살펴보니, 기본적으로 밖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래서 혼자 나가서 밤에 찬양을 하였다. 밤에는 외국인들이 많다. 밤에는 타박의 도시더라. 장호원도 밤에 화려하다. 외국인들이 오전에 일 한 후, 밤에 옷을 화려하고 나와서 제 몸을 아무데나 던진다(부모님에 대한 터치가 없으니깐). 밤에는 외국인 문화이다.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찬양을 시작하게 됐다. 뒤에는 교회 소개 문구를 적고 찬양을 했다. 구글 홈페이지에 있는 디자인에서 힌트를 얻어, 뒤에 외국인들이 눈여겨 볼 만하게 만들었다. 뉴욕 맨해튼에서 피켓 들고

95) 앞서 소개한 인터뷰에서 사역의 내용에 맞게 약간 편집하였음을 밝힌다.

전도하시는, 지용훈 목사님의 사역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아예 시간을 작성하고 내려놓았다. 저도 저녁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아예 8-10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거의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날에는 늘 나가서 하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성경구절을 보여주곤 했다. 누군가 따라 나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저는 찬양만 할 수 있었다. 10 sounds, open your eyes, Here I am to worship 등의 찬양을 했다.

위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인수 목사는 전도지를 직접 만들어 전했다고 한다.⁹⁶⁾

한편, 새벽인력시장 전도는 주로 구인수 목사가 직접, 새벽 인력사무소를 찾아 계란과 요쿠르트와 함께 전도지를 나눠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 평가

장호원감리교회는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이천, 여주, 장호원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다. 물론, 여러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앞서 소개한 세상의 빛 선교 교회보다 더 전문적인 사역을 하고 있진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다음의 몇 가지 면으로 장호원감리교회의 다문화 사역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장호원감리교회는 구인수 목사의 1인 체제로 이루어진 다문화 사역이지만, 그의 구령의 열정으로 인해 충분히 다문화 사역의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앞서 다문화 사역의 성경적인 원리 중 하나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전도하는 구령의 열정이라고 했었다. 구인수 목사는 이런 점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었다. 길거리 노방전도와 새벽인력시장 전도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구인수 목사는 다문화 사역 이외에 다른 사역을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다른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장호원감리교회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구인수 목사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언급했지만, 처음에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장호원감리교회를 찾을 때는 대다수가 돈을 빌리거나,

96) 부록1을 참고하라.

교회의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장호원감리교회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선교의 기회로 삼았다. 이것은 다문화 사역을 할 때, 궁핍의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성경적인 원리를 잘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역시 장호원감리교회는 이제 갓 다문화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먼저,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등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앞서 세상의 빛 선교 교회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함으로써 그들이 교회에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장호원감리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였다. 더불어,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사역 프로그램의 부재도 아쉬운 대목이었다. 그러나 이제 갓 다문화 사역을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다문화 사역을 향한 구인수 목사의 열정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런 약점이 보완될 것으로 여겨진다.

3.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

가.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 소개와 사역 현황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는 2008년도에 설립하여 2015년 현재 약 80여명의 다문화 이주민들이 교육받고 있다. 특히 다사랑 센터에서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각국 다문화 이주민들이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신으로 다문화 이주민들이 잘 적응하기 위한 신앙교육, 언어교육, 문화교육, 음식 만들기, 기타 각 가정에서 필요한 제능교육 및 상담을 통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다.⁹⁷⁾

한편, 이천 다사랑 다문화 센터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사역은 아니지만, 센터장이 목사이고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대부분이 기독교적 정신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본 장에서 소개하게 되었다.

97) 2015년 7월 28일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진 이정식 목사와의 인터뷰와 2014년 11월에 창간된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 회보(창간호1)를 참조하였다.

나. 사역 내용 및 특징

(1) 조직 및 사역분담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는 이천시 기독교 연합회와 여러 지역 교회 그리고 개인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⁸⁾

이사장 : 전홍구목사, 부이사장 : 함상식목사, 센터장 : 이정식목사
 총무이사 : 김건태목사, 재정이사 : 김주현, 감사 : 임상열목사, 최분옥
 고 문 : 최동규목사, 이은찬목사
 이 사 : 구준모목사, 최병원목사, 조한수목사, 유명환장로, 기독교연합회장,
 이향숙,
 기도 및 재능후원 이사 : 이용준목사, 류재만 외
 사무장 : 오귀선, 사무간사 : 신미경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의 사역은 주로 이정식 목사가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그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역과 센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글 교육이 다문화 사역의 대부분이다. 이정식 목사는 다사랑 다문화센터의 다문화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첫째는, 한글 교육이며, 둘째는 월별 행사이다. 추후, 더욱 다양한 사역 계획을 갖고 있으나, 센터 형편상 현재는 두 사역을 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였다.⁹⁹⁾

(2) 사역 배경

이정식 목사는 다사랑 다문화센터의 사역 배경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질 문 자 : 이 센터의 역사와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정식 목사 : 현재 이천시에 1300가정의 다문화 가정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올해 등록된 사람들

98) 앞서 언급한 2014년 11월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 회보(창간호1)를 참고하였다.

99) 2015년 7월 28일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진 이정식 목사와의 인터뷰를 참고하되, 내용에 맞게 약간 편집하였음을 밝힌다.

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서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 일은 오히려 이단들인 통일교에서 잘 하고 있다. 다문화사역을 위한 시설 투자도 잘해서 아주 훌륭하다. 현재 우리는 미약한 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면, 남편과 나이 차이가 15-20살이 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집 올 때는 문화가 달라서 저마나의 생각을 갖고 온다. 한국은 시집가면, 그 집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 곧 출가외인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상 젊은이들 중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친절으로 보내는 것을 꺼린다. 그런데 동남아 여러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친절을 얼마만큼 잘 협조하고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아버지의 권위가 살게 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쪽으로 시집 와서 한 30만원이라도 친절으로 보내주길 원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그것이 쉽지 않다.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가정불화가 많다. 처음에는 어린 신부를 보면서 한글도 가르쳐주며 알콩달콩 살지만, 1-2년 지나면, 지금까지 발도 못하는 신부를 보면서 거의 명령식의 어조를 사용하게 된다. “시장 갖다 와, 누굴 데리고 와.” 난 이것이 한국 남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말은 잘 못해도 듣기는 한다. 그래서 55퍼센트가 이혼을 한다. 센터를 운영한지는 8년이 되었다. 제가 여긴 온 지는 2년 되었다. 센터장은 자주 바뀌었다. 왜냐하면, 다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니깐, 관리가 잘 안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의 장소는 연합회에서 얻어준 건물이다. 그리고 현재 후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이천신학교회(20만원)이다. 다른 교회는 작은 액수, 뭐 5만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달에 고정적으로 80-90 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다. 나라에서는 선생님들 세 명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는 간사가 한 명 있다. 그 사람이 50만원 정도 사례비를 받는다. 저는 1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는 없다.

위의 인터뷰에서 밝히는 것처럼,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의 사역은 주로 한국에 시집 온 결혼이주민 여성의 한글 교육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돕고, 나아가 이들이 처한 문제점(부부 갈등, 자녀 문제 등)을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역이 시작된 지는 약 8년이 되었지만, 그동안은 다문화 사역과 관련이 별로 없는 목사님들이 하다가, 이정식 목사가 온 이후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사역의 내용 및 특징

(가) 한글 교육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의 한글 교육은 일주일에 두 번씩 이루어진다. 보통 3년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 파송한 한국어교사가 직접 가르치고 있다. 반마다 배우는 정도가 다른데, 초급, 중급 등으로 나뉘진다. 이정식 목사의 발을 빌리

면, 4-5단계 끝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국적 취득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¹⁰⁰⁾ 다음은 실제로, 다사랑 다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진 한글 교육 과정이다.¹⁰¹⁾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 한글 교육 과정별 현황)

초급 0단계 : 월, 수, 금 (2월 24일 9시부터 5시간씩 - 2월 28일)

초급 1단계, 중급 1단계 : 화, 목 (3월 4일 10시부터 3시간씩 - 6월 26일 4시간)

초급 2단계, 중급 2단계 : 수, 금 (3월 5일 10시부터 3시간씩 - 6월 27일 4시간)

5단계 : 한국 사회 이해 (3월 3일부터 10시부터 3시간씩 - 6월 30일 2시간)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글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5단계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을 배운다는 것이다. 즉, 한글 교육을 이수한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국사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모두 5단계로 기초 0단계부터 1~4단계로 약 2년의 걸쳐서 각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교사들은 정규 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학기는 1, 2학기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되며, 매년 3월과 9월에 개강을 하여 월~금까지 수업을 진행하며, 과정 이수 후에도 원하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청강을 할 수 있다.

(나) 월별 행사

이정식 목사는 본 센터에서 한글 교육 외에 월별로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다. 다음은 2014년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 월별 행사 내용이다.¹⁰²⁾

1. 필리핀 태풍피해민 돕기 성금 모금 행사
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사 이해 교육
3. 후원 모금을 위한 일일차집 및 바자회
4. 다문화 이주민 가족 초청 친선 체육대회

100) 2015년 7월 28일 다사랑 다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진 이정식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다.

101) 2015년 7월 28일 다사랑 다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진 이정식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다.

102) 앞서 언급한 2014년 11월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 회보(창간호1)를 참고하였다.

5. 각종 악기 및 인형극, 수학, 주산 배우기(자녀교육)
6. 추석맞이 어울 마당 위로잔치
7. 세계인의 날 행사 참여(각 나라 요리 시식회)
8. 각종 외부행사 및 대회 참가(사상 대회, 음악회)
9. 각종 한국요리 배우기 수업
10. 각 가정 방문 및 가정 문제 상담
11. 각 개인 신앙 상담 및 지도
12. 각종 견학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 교육

실제로, 2014년 11월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 창간회보를 보면, 이 행사를 진행한 후,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다) 사역의 남은 과제와 비전

이정식 목사는 인터뷰 발미에, 앞으로 남은 사역의 과제와 비전에 대해서 말하였다. 특히, 그는 이천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다문화사역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 되, 각 교회별로 전문성 있게 예배를 드리자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베트남인들만을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스리랑카인들만을 위해서, 또 어떤 교회에서는 필리핀인들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지역 내 다문화사역이 전문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음은 그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질 문 자 : 앞으로 사역의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정식 목사 : 앞으로 전문성 있는 사역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어느 교회, 스리랑카는 어느 교회, 필리핀은 어느 교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잘 쉬이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잘 쉬이지 않는다. 특히 필리핀 사람들은 소외된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다수라서 그들이 자리를 잡아버리니, 필리핀인들이 소외가 되는 것 같다. 특히 그 나라 사람들이 직접 사역자로 세워지면 좋은 것 같다. 중국인이 직접 중국인들에게 설교하면, 그들이 감동을 받는다. 아무리 한국인인 설교를 해도 감동받지 못하는 것이, 그 나라의 사람이 그 나라 사람에게 설교를 하면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사역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다. 이천 다사랑 다문화 센터

이천 다사랑 다문화 센터는 이천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사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사역의 장점과 단점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들의 사역을 몇 가지 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이천 다사랑 다문화 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사역에 중점을 둬으로써, 그들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데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정식 목사는 이천 지역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다수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는 이럴 때, 그들을 위한 상담과 언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천 다사랑 다문화 센터는 이 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다. 정기적인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의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수시로 찾아오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상담해 줌으로써, 그들이 겪는 갈등을 간접적으로 해소해 주고 있다.

둘째, 이천 다사랑 다문화 센터는 정기적인 다문화 행사를 가짐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소외감을 덜 느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앞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은 다른 문화적 환경 때문에 소외감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천 다사랑 다문화 센터는 이들의 이런 취약점을 잘 돌봐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천 다사랑 다문화 센터는 본질적인 면에서 아쉬움을 크게 보이고 있다. 물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설교 시간을 가진다고는 하나, 말씀을 읽히고 훈련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은 잘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사역의 접촉점은 그들이 처한 문제 해결에 뒤야겠지만, 결국 말씀 전파와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데에까지 사역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천 다사랑 다문화 센터의 사역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5 장

지역교회의 효과적인 다문화사역 제안 : 이천신하교회를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이천 신하교회의 구체적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교회가 어떻게 효과적인 다문화 사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특히, 앞선 연구에서 살펴본 성경적이고 목회적인 사역 원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문화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방안을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이천신하교회에서 어떻게 다문화 사역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소개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다문화 사역과 이후에 이루어진 평가를 언급하고자 한다.

제 1 절 이천신하교회 소개 및 지역 현황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이천신하교회(예장합동)은 1975년 1대 목사인 000 목사에게 의해 개척된 후 현재 4대 담임목사인 홍성환 목사에 이르기까지 은혜롭게 성장한 지역교회이다. 특히 올해는 4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이기도하다.

특히 이천신하교회는 원로 목사이신 이철후 목사가 임기를 9년 남겨 놓고 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조기 은퇴하여 많은 한국교회에 귀감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천신하교회는 원로목사인 이철후 목사의 33년의 사역을 통해 지역 섬김에 남다른 관심과 헌신을 보여 왔다.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사역을 2001년부터 꾸준히 해왔으며, 은빛 사랑채(지역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근 10년간 운영하면서 지역에 모범적인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

이후, 4대 목사인 홍성환 목사가 2012년에 부임하면서 '지역의 영혼을 섬기는 교회'라는 구호를 정했고, 실제로 이를 통해 지역 섬김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서 선교의 장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우리 지역(이천,광주,여주,장호원)의 특수성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정의 수가 많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선교부 안에 다문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이천지역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이천소재에 있는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후원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이천 다 사랑 다문화 센터’가 상주해 있었으나 규모나 재정 후원이 부족하여 다른 기관에 비해 왕성하게 사역을 못하고 있었다.

이천 지역의 다문화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역교회들보다 이단들의 사역이 오히려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오래전부터 통일교가 다문화 가정 사역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 그들 사역의 지경이 너무나 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이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80%이상이 통일교가 운영하는 다문화센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⁰³⁾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신천지까지 다문화 가정에 손을 뻗어 ‘사랑 나눔 신천지 한글문화 센터’라는 간판을 버젓이 걸고 한글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이천 지역에는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을 공략하여 선교와 포교 활동으로 교세를 넓혀가는 사이비와 이단 단체가 많은 것이 현실적인 사역의 어려움이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런 사역의 배경을 토대로 이천신하교회가 왜 다문화 사역을 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이천신하교회 다문화 사역동기

통일교의 다문화 사역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본부의 정기적인 후원으로 벌써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개신교회들은 다문화 사역에 대한 인식을 거의 못하고 있었고 설사 다문화 사역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문화사역을 감당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러다보니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한 사역적 어려움이 많았다.

103) 2015년 7월 28일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진 이정식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천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다문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통일교는 다문화 사역에 집중했고 자연스럽게 통일교가 다문화 사역을 앞서서 하게 되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천신하교회가 다문화 사역을 시급하게 서둘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문화 가정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위한 선교적인 접근도 그렇지만, 이단들의 득세에서 저들을 구해야 하는 구령의 열정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이천신하교회는 출석교인만 1900명이 나오는 중형교회이다. 이미 이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개 교회로써 충분히 다문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고 몇 달 간 주일 강단에서 다문화사역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으로 도전하였다.¹⁰⁴⁾

그 결과 성도들 중 다문화 사역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사역에 대해서 질문하는 성도도 있었는데 어떤 성도는 다문화 사역을 우리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천신하교회의 다문화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현재 이천신하교회에 모이는 다문화 가정의 수는 약 35명(자녀 포함)이다. 이들은 매주 주일 오후 1시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을 돕는 11명의 도우미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매주 약 45명 정도의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천신하교회의 다문화 사역은 주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예배 사역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다문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5월 5일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예배도 드리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결혼예배도 집례하고 있다.

둘째는, 교육 사역이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는 한글 교육과 제자 훈련이 그것이다. 특별히 이천신하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로서, 이 사역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는, 상담 사역이다. 사실, 이 사역이 이천신하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104) 다문화 비전 제시 설교문 중 한 편을 부록에 수록함

사역 중 핵심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 사역은 그들이 처한 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앞서 언급했는데, 바로 이 사역이 그러한 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구제 및 장학 사역이다. 이천신하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다문화 가정의 날 행사를 갖는데, 이때 들어온 모든 헌금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은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자연스레 그들의 교회 정착을 돕게 된다. 다음은 실제적으로 이천신하교회에서 다문화 사역을 하기 위해 당회원들과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3절 다문화 사역 비전제시

본 절에서는 이천 신하교회에서 다문화 사역을 위해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곧 비전 제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 비전 제시와 정책당회를 통한 목회정책 수립

비전 제시는 인식 변화의 첫 단계로써 다문화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심어주는 단계이다. 다문화 사역은 교회내의 한 부서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내에 다른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막중한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당회의 선 인식이 중요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먼저 당회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역의 인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했고 다문화 가정에 관심과 마음이 있는 당회원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몇몇 장로님들 중심으로 다문화 사역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당회원들에게 비전 제시를 할 때는, 주로 당회 시간을 활용하였다. 당회 시간에 짧게 설교를 하면서, 다문화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피력하였고 감사하게도 당회원들도 필자와 같은 인식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교회 내에 다문화 가정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공부와 섬과 여가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의 필요함을 말했으며, 그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어서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다문화가정 내의 성도들은 그곳을 최고로 아름답게 꾸

미면서 기뻐하였다. 그 후에 그들과 함께 하는 성경공부를 통한 신앙성장의 부분에서 합의가 되어 이들을 위한 성경공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기 시작하였다.

2. 설교를 통한 비전 제시

어떤 사역이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 교인들로 하여금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동일한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본 교회 성도들에게 앞서 살펴보았던 다문화 사역의 성경적인 근거인 레위기와 신명기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중 객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다. 이러한 말씀교육과 철저한 섬김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인식하게 하였고, 나아가 먼 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반이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 결혼하여 들어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하고 삶의 변화를 돕는 것도 큰 사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도·농 지역 총각들을 위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을 전도 대상으로 보고 선교적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담임목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상도 제시하기 위해 설교시간을 활용하였다.

3. 교육을 통한 비전 제시

교육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바른 교회관을 정립하게 되고 사역의 방향성도 결정 된다. 그래서 먼저 교회 내에서 교육의 초점을 다문화 가정에 맞추었으며, 더 나아가서 다문화가정 내의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계기로 다문화가정 내의 성도들의 교육을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와 구역장들 중에 봉사자들로 선정된 분들에게 다문화가정 내의 성도들을 위한 성경공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먼저 설명했다.

그래서 먼저 다문화가정 내의 성도들과 함께 할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교재를 가지고 2013년도에 먼저 구역장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경공부를 했던 구역장들에게 이 교재는 호응이 매우 좋았으며, 모두가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다문화가정 내의 성도들이 공부할 것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목표를 정하고 구역장들에게 숙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였

다.

구역장들에게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섬김과 봉사를 강조하여 성경공부 모임에서 교육하는 중에 교회의 바른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교육하고 섬김의 의미와 정의, 봉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섬김에 대한 사명감을 교육하며 기도하게 한 결과 봉사자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명령이므로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내의 성도들을 돌보는 당연하며 이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실하게 교육하였다.

27주를 목표로 세워시 구역장들과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모든 구역장은 성경공부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였으며, 구역장외에 구역식구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참여하게 하였다.

4.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견학을 통한 비전 제시

교회 내의 봉사자들을 세우고 이들에게 온전하게 역동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있는 기관을 견학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기관이나 그들이 움직이는 곳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견학하여 그곳에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으며, 한국에 적응을 하기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다문화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는데 필요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다. 이곳을 견학하고 온 봉사자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 견학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본 교회에 속한 다문화가정 내의 성도들이 이들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봉사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움직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게 함으로써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열린 인식들을 갖게 하였다.

5. 다문화 가족 성도들을 위한 바자회 사업을 통한 비전 제시

2015년 5월 본 교회에서 “다문화가정 돕기 바자회”가 열렸다. 이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이 몇몇 봉사자들 중심에서 전체 성도들로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 바자회를 통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한 마인드를 성도들이 공유하게 되었고, 맘 흘리며 헌신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

교회 바깥에는 플렌카드를 걸어 미리 홍보도 하였으며, 교회 카페에서는 먹을거리와 차 종류를 판매하였으며, 음식은 다문화가정 성도들을 위한 전통적인 음식들이 준비되었다. 교회 내 다문화가정의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참여하였고,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좋은 호응을 보였다.

1층 로비에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손수 만든 각 나라의 전통적인 것들이 판매되었으며, 특히 액세서리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다. 오전 9시부터 바자회 일과를 시작하였다.

하루 종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었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들은 이제 남들이 아니라 우리가 돌봐야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할 이웃들임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의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다문화가정 성도들의 신앙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일깨우게 되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러한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신앙성장에 가장 도움을 준 예배를 통한 신앙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훈련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제 4 절 구체적 사역소개 및 실천

본 절에서는 실제 이천 신학교회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사역을 위한 위원회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위원회 구성 및 훈련

가. 위원회 구성 기준

본격적인 다문화사역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어떤 형태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가였다. 그래서 다음의 몇 가지 기준으로 다문화사역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전남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목사 한 명을 담당 사역자로 세웠다. 둘째, 성도들 중에 대표 한 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당회원 중에 한 명이 위원으로 합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장로 한 명을 위원으로 세웠다. 셋째, 실제적인 다문화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준비된 헌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교회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중직자 가운데 네 명을 세웠다.

나. 위원회 훈련

다문화가정 내의 성도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위원들이 강력하게 무장해야 하기에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첫째 주 주일 7시에 모임을 가졌다. 먼저,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하여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작은 기도의 모임으로 다문화 사역의 불씨가 키워졌지만 모임 때 마다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다문화 사역에 대한 집중력은 더 강화되었다.

또한 다문화 사역이라는 것이 열정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님을 인식하고, 구성원들의 정확한 이해와 인식의 확고함을 위해서 훈련이 실시했다. 우리는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다문화가정 성도들과 함께 할 성경공부 교재로 미리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전 교육의 실시와 매주일 그리고 가정과 주어진 자리에서 매일 중보기도하면서 봉사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되었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의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다. <표 18>은 실제적으로 이천 신학교회에서 이루어진 위원회 훈련 내용이다.

<표 18> 다문화가정 위원회 훈련 내용

일시	내용
1차 교육 (2015. 01)	<p>다문화사역 준비 위원들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먼저 사명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일은 본질적인 사명인 동시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임을 일깨워주었다. 그리고 이 일이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하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다.</p>
2차 교육 (2015. 02)	<p>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사회임을 교육하였고, 다문화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시대적인 소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 사역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음을 감지하였으나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가정이 세속의 문화에 젖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이야기도 들려줌으로써 사역에 대한 공감대도 키웠다.</p>
3차 교육 (2015. 03)	<p>교회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문화사역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CCC의 사영리 교재를 소개해 주고 실습해 봄으로써 언제든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p>
4차 교육 (2015. 04)	<p>다문화사역이 단지 한 번의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역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에배와 다문화가정 제자 훈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구체적으로 사역의 분담을 해줌으로써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p>

제 3 절 실천

1.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방문 상담 사역

이천신학교회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역을 고민하던 차에, 가장 먼저 방문 상담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천 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 가정 방문 상담 사역을 기획하게 되었다. 특히, 이 사역은 이천신학교회 선임목사인 서경호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¹⁰⁵⁾

구체적으로, 이 사역을 위해 상담 사역의 대표 사역자로 서경호 목사를 세웠고 결혼이주여성들을 한 사역이다 보니, 박희숙 여전도사와 김숙자 권사도 함께 그 사역을 돕도록 하였다. 즉, 이들 세 명으로 다문화 가정 방문 상담 사역이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의외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문제는 기본이거니와 남편의 폭력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었다. 다음은 상담을 하면서 그들이 밝힌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기에, 익명 처리한 점을 양해 바란다.

000 다문화 가정 성도 : 처음에 이천으로 시집왔을 때, 좋았어요. 남편도 자상했고, 시어머니도 너무나 따뜻하게 저를 대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편도, 시어머니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다보니, 남편은 잘 보면서 자꾸 답답해했고 말투도 명령조(이거 해, 저거 해 등)로 바뀌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시집 온 여성들을 위해 처가에 일정 금액의 돈을 부쳐주는 관행이 있는데, 처음에 그것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점점 저를 감시하는 감시자로 변해가셨어요. 제가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거나, 다른 것에 한 눈이 팔릴까봐 그러신 건지 몰라도 정말 불쾌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면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105) 서경호 목사는 이전에 사역했던, 군산사랑의교회에서 이미 다문화 사역을 시작할 때 방문 상담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필자에게,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겪는 고충을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상담 사역만큼 효과적인 사역이 없다고 피력하였다.

위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겪는 어려움(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어려움과 부부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상담을 통해서 속이 후련해진다는 고백을 종종 했다. 그리고 외로운 이국땅에서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고백도 하였다.

이처럼, 이천신학교회의 방문 상담 사역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되었다. 앞으로 이 사역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조금 더 발전시켜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상담사를 채용하여 상시 상담을 실시하려고 한다.

2. 다문화 가정을 위한 효과적인 예배

다문화가정을 위한 예배는 그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 구성원들이 우리 문화에 스며들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장벽은 소통과 문화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이 사실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효과적인 예배의 장을 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세 가지 차원에서 대안을 고안하게 되었다.

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배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민족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은 비슷하다는 점에 기인하여 오감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예배를 기획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멀티미디어 예배를 구성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예배 전 이미지 메이킹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광고를 보면,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몇 십 분짜리 영화의 이미지보다 단 20초에서 30초 사이의 광고가 주는 이미지가 보다 강력한 여운을 남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디어의 힘이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예배를 위해, 예배를 시작하는 준비 단

계에서부터 각별한 신경을 썼다. 다양한 언어로 기획된 예배 찬양과 다문화를 고려한 Intro 동영상이 바로 그것이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알만한 영어 찬양을 미리 틀어주어 기도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 찬양에서도 영어 찬양을 하도록 하였으며, Intro 동영상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은혜를 체험한 후, 간증을 하는 간증영상을 보여주었다.

(2) 설교에서 동영상 활용

설교자가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적절한 동영상을 활용한다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예배는 더욱 더 극대화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영상 상영 시간이다. 본 교회에서는 실제 예배 시에, 동영상의 상영시간을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10 분을 넘어서면 아무리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상이라도 할지라도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날의 설교 주제와 관련이 깊으면서도, 다문화가정의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만한 동영상을 보여주어 그들이 주의 깊게 설교를 듣도록 하였다.

(3) 찬송에서의 활용

앞아서 찬송을 부르는 것보다는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외감을 적지 않게 느끼고 있었다. 언어 문제도 그렇지만, 찬양을 드릴 때 따라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인도자가 회중들을 일으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고,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도 함께 움직이면서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영어 자막을 보여주면서 더욱 큰 효과가 발휘되었다.

(4)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간증 영상을 이용

본 이천 신학교회에서는 세례를 집례하기 전에, 항상 세례자 중 한 명을 택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하도록 독려한다. 이것을 다문화가정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교회 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잘 설득하여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였고 그의 인터뷰 영상을 고스란히 설교 전이나 후에 보여주면서, 다른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나. 다문화가정의 언어와 문화를 고려한 예배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의 언어와 문화를 고려한 예배를 기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언어와 문화를 고려한 예배를 구성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다문화가정의 언어를 고려한 예배

다문화가정을 위한 효율적인 예배를 기획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언어를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영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알고 있는 한 교회에서는 필리핀 출신의 교역자를 청빙하여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다른 교회에도 충분히 고려될만한 사항이다.

현재, 본 연구자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의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영어 M.div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교회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 예배를 기획하고 그들을 일일 강사로 불러 영어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선교에 아주 효과적이었다. 특히, 동남아시아권의 사역자를 불러서 그가 예배의 전체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서로 비슷한 문화권을 공유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더욱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쌓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그 사역자를 Full time 사역자로 청빙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2) 다문화가정의 문화를 고려한 예배(다문화가정 헌신예배)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선교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그들과 우리의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1년 중에 한두 번 정도는 다문화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그들의 문화를 고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여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헌신예배가 바로 그것이다. 국내에서 헌신예배는 주로 남녀 전도회나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때, 다문화가정이 주가 되어 헌신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나 기존 한국 성도들에게나 서로 유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하게 되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은 본인들이

교회의 예배를 직접 사회도 보고, 진행해 봄으로써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성도들은 다문화가정의 문화를 경험해 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성도들을 더욱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직접 사회를 보도록 하고, 그들이 함께 특송을 하도록 하였다. 보통 특송을 하려면, 그 전에 모여서 연습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시간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끈끈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 민족별로 찬양 한 곡씩도 더불어 부르도록 하였다.

또한 설교자도 미리 선교사를 섭외하여 진행하였다. 끝으로, 그 날의 헌금은 오직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한 구제 및 장학헌금으로 쓰도록 당회와 결의하였다.

다. 다문화가정의 결혼과 자녀들을 위한 예배

(1) 다문화가정의 결혼예배 집례

다문화가정이 생기는 원인 중 다수는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다문화가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교회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식을 집례 하도록 하였고, 그것은 그들을 전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물론, 타 민족의 사람과 결혼하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천천히 알려지길 바라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도 있었지만, 결혼은 남녀가 서로 부부의 연으로 맺어졌음을 알리는 예식이고, 또한 그로 인해 가정에서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일이기에 공개적인 곳으로 선택하도록 그들을 잘 이해시켰다.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교회에서 실시한 다문화가정 결혼예식의 모형을 만들었다.¹⁰⁶⁾ 신부가 한국말을 잘할 경우 모든 순서를 한국말로 하고 한국말이 어려울 때는 통역자를 세우고 예식을 거행하였다.

(2)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예배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다. 그래서 5월 5일이 있는 주간에는 어린이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대다수이다. 이것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보았다. 1년에 하루 정도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예배로 드리는 것이

106) 결혼 예식서는 부록 6을 참조

괜찮다는 판단이 들어서, 실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시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예배의 모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이 예배모형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이 잘 섞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별히, 본문은 요나서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이방 민족을 사랑하지 못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알려 다문화 가정의 다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사랑하심을 받게 한다. 또한 피부색이 다르다고 미워한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한다. 교육부 부서의 특성상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가 인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성찬 대신 애찬식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몸이 참여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이 예배의 모범은 본 논문 뒷부분의 부록 7에 게재되어 있다.

3.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가. 한글학교

이천 신하교회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이 한글학교이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으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임에 틀림없다. 사실 한글학교 사역이 처음에 하기에는 가정 적합하다. 주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 전문적인 한국어 강사에게 교육을 받게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¹⁰⁷⁾ 한글학교 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후보에 광고를 실었고, 담당 사역자로 하여금 접수를 받도록 하였다. 그 결과, 꽤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로 대상은 결혼이민자나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들이었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 한편, 한국어교육 이수 후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한국어에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였다.

107)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한글공부를 하었는데 강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자격증 있는 분으로 모집하여 시작하였다

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제자훈련

본 연구자가 섬기는 교회는 사랑의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자훈련”을 주된 양육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성도들에게도 “제자훈련”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되었다. 먼저, 제자훈련 예비반을 통해서 이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바이블 아카데미, QT 세미나, 성경지리반 등의 과정 중 하나를 이수하게 한 후, 본격적인 제자훈련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 제자훈련 전담 사역자(영어 가능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다음은 실제, 제자훈련생들의 소감 내용이다.

편드라(방글라데시 33세):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남편이란 많이 싸웠어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서 남편을 좀 더 알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게 닥친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기쁩니다.

두엔나(몽골 39세): 사람이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첫 번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가 남편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이 자녀임을 배웠습니다.

관계 속에 이런 우선순위가 바로서야 행복함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내 주신 숙제를 통하여 때론 힘들기도 했지만, 많은 감동을 받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다양한 숙제를 통하여 가슴이 뭉클하였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가족과 가정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4.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구제 및 장학)

가. 제 1회 이천신하교회 다문화가정의 날

<표 19>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프로그램 진행표

시간	프로그램명	담당자	준비물	비고
15:30-16:30	테이블 배치 및 세팅	진채	테이블, 풍선장식 등	
16:30-16:55	리허설	"	프로그램 진행사항 점검	
16:55-17:00	오프닝 영상	박용운	이천신하교회 교인 가족사진	
17:00-17:30	예배 및 내빈소개	목사님	내빈초청	30분
17:30-17:35	모범 성도상 시상식	사회자	조셀린, 도날린 수상이유 멘트	5분
17:35-17:40	필리핀교회 소개영상	박용운	영상실 준비	5분
17:40-17:50	여호수아위십팀 축하공연	사회자	2곡 악보 및 반주자	10분
17:50-18:00	단체기념사진촬영	박용운		10분
18:00-18:40	저녁만찬	권사회	150인분, 후원물품 체크	40분
18:40-19:00	레크리에이션	한철형		20분
19:00-19:30	한국어 퀴즈경연대회	담당자	정답자 선물준비	30분
19:30-19:35	신앙 간증문 낭독	조셀린	배경음악, 한글자막	5분
19:35-19:40	즉석 생일 및 결혼기념일 축하	사모님	화관, 케이크, 장미 10송이	5분
19:40-19:45	목사님 인사말씀	목사님		5분
19:45-	뒷정리	전체		
프로그램 실제 총소요시간			2시간 45분	

(1) 개요

사업일시: 2015. 6. 21. 오후 2시

장소: 이천신하교회 본당

주제: 우리는 하나! (엡4:4)

참여대상 및 인원: 이천신하교회 주변 다문화가정 약 625여명

(다문화가정: 50가정(120명), 이천신하교회교인: 500명(장로 및 스텝), 내빈108)

(2) 프로그램 진행 시간 및 담당자

108) 내빈으로는 이천시장, 국회의원 및 다수

<표 19>는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를 진행할 때 사용했던 프로그램 진행표이다.

(3) 평가회

<표 20>은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때 정리했던 평가 보고서이다.

<표 20>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평가 보고서

항목	문제점	개선점	비고
식사준비	식사 준비량 많음 예상인원 산정 비현실적임	과거 준비팀 자료작성 및 참조 필요함	
프로그램	담당자들의 시간지연 소품들이 부족함 행사장이 비좁음 아이들이 산만하여 어수선�함	담당자들 사전 교육이 필요함 아이들을 돌봐줄 섬김이가 필요함	아버지들이 적극적임
홍보 및 준비	개인 연락이 부족함 시간에 늦게 참석함	공지된 시간에 시작해야 함 2개월 전부터 후보 광고로 홍보	
행사 자료화	행사 종료 후 자료 보관 미흡함	영상 및 관련 근거 보존(필리핀교회)	캐비넷 구입

제 5 절 평가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하였던 다문화 사역의 평가를 하고자 한다. 평가는 총 세 그룹으로 진행하였는데, 먼저는 그동안 다문화 사역을 앞서 진행한 위원회와 함께 사역을 경험한 참석자 그리고 본 필자의 평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의 평가에서는 앞서 살펴본 다문화 가정 사역의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천신학교회 다문화 사역의 장단점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지역교회에서 어떤 방법과 태도로 다문화 사역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1. 위원회의 평가

다문화 사역에 마음이 있었지만 처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막막한 그 자체였다. 우선은 마음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중심으로 기도모임을 시작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 이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과 함께 찾아온 위원회들의 열정이 서로간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고 그 모임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감격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다.

다문화 사역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만나게 되었던 그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고 이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확신아래서 기도하며 서로 격려했던 것이 우리 모임을 지탱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준비 위원회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사역에 임하고, 또 다문화 가정의 성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생활이 되기를 위한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욕도 상실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본인의 교회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생각에 많이 힘들어 하였다.

그러나 사역을 통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다문화가정 내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나 그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며, 교회의 봉사의 자리에 참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처음 다문화가정의 성도들은 교회생활을 하면서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기존의 성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다문화가정의 성도들도 기존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준비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먼저 ‘안녕하세요?’하며 인사하고 예배시간에도 앉전히 앉아있는 모습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노라고 고백하였다.

특히, 교회에서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성경공부 사역을 하면서 준비위원회 내의 성도들 중에서 이들을 위한 헌신하며 사역하는 숨은 일꾼으로 변화되어가는 봉사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들이 이 사역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이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토요일에 시간을 내어서 그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보다도 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며, 사적으로도 시간이 되면 만나고 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문화가정들

이 복음 전해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체 모든 위원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전 교인들의 세심한 배려는 다문화 가정들을 따뜻한 품으로 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되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문화 사업이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들의 신앙성장을 자극할 것이며 외부적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부흥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2. 다문화가정 예배 참석자의 평가

다문화 예배 후 당시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설문조사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의 평가는 이미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한국에 온지 12년이 된 필리핀 여성 줄리안이라는 여성이 설문지를 통해 고백한 이야기를 실로 놀라웠다. 그 여성은 20살이 많은 농촌 신랑과 결혼을 하였으나 문화 차이로 결국 결혼하지 4년 만에 파경에 이르게 되었고 아이 하나와 함께 경제적 빈곤층으로 자살을 결심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왔는데 누군가의 소개로 다문화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텅 빈 인생이 채워짐을 경험하면서 삶의 소망을 다시 경험했으며 무엇보다 자기 인생에 큰 도전을 준 것은 다문화 봉사자들의 소리 없는 헌신과 섬김이었다고 한다.

그는 고국인 필리핀에 돌아가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봉사자의 사명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한 후,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하는 이들은 000 집사를 포함해서 3-4명에 이르고 있다. 설문지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내의 성도들의 신앙성장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다문화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한다.

이러한 예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3. 필자의 평가

기존의 교회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기존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성장에 전념을 다하고 있으며, 소외된 이들

에 대한 실천이 부족한 편이다. 이천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 지역은 이단들이 다문화 사역을 이끄는 실정이라서, 기존 교회의 다문화 사역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역의 한계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앞서 소개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원리를 토대로, 이천신하교회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사역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천신하교회의 다문화 사역은 본질적인 복음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 앞서, 이천 다사랑 다문화 센터나 세상의 빛 선교 교회의 경우, 본질적인 사역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특히 예배를 드리는 면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천신하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어린이주일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예배 그리고 1년에 한번은 다문화 가정 헌신예배를 드림으로써, 다문화 사역을 본질적인 영역으로까지 이끌고 있다.

둘째, 이천신하교회의 다문화 사역은 선교적인 접촉점을 잘 찾음으로써,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다. 앞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살폈었다. 주거 환경과 자녀 양육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 부부 간의 갈등, 나아가 자녀들의 문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천신하교회에서는 이것을 간파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글학교”와 “방문 상담 사역”,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다문화 가정의 날 행사를 통한 “구제 장학금 마련”으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것은 앞서 다문화 사역을 할 때, 지역교회가 어떤 지점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천신하교회의 다문화 사역은 다른 다문화 사역을 하는 교회와 달리 제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을 평범한 성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세우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만 하다.

앞서 세상의 빛 선교 교회 역시, 다문화 가정 제자훈련을 실시하였지만 그들의 제자훈련은 이천신하교회만큼 전문적이지 않았다. 이천신하교회는 제자훈련 사역이 이미 자리매김한 교회로서, 이 사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열매를 거둔 것이다. 이것은 향후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다문화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이천신하교회의 다문화 사역은 지역의 어려운 사역 현실 속에서도 곳곳이 사역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이천, 여주, 장호원 지역은 이단의 다문화 사역이 훨씬 영향력이 크다고 살폈었다.

이때 기존의 개신 교회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다문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교회에 경각심을 일깨웠고 나아가 잠재적으로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는 다문화 가정을 이단이 아닌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열매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이천신하교회의 사례는 향후 지역교회에서 다문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천신하교회의 다문화 사역에도 여전히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는,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어려움을 돕는 프로그램의 부재이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하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전담 사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역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아쉬운 점이다. 이것은 이천신하교회가 향후 보완해 가야 할 숙제이다.

제 6 장

결 론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다문화 인구는 100만이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시대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문화를 배제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한국 사회가 더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로 변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1997년 IMF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농촌경제는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많은 농가의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게 되었고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아 노동력이 절실하게 되자 남아있는 농촌의 총각들을 국제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도록 나라가 적극적으로 정려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농촌 결혼 총각의 절반 이상이 또 도시 청년의 17퍼센트 이상이 결혼 이주여성과 결혼하고 있다.

충북 한 지역의 출생신고 현황을 보면, 금년 상반기 동안에 다문화가정 2세대만이 출생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농촌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선교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국가와 각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추이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으나 한국교회에서는 아직 이들에 대한 섬김과 전도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라도 각 지역교회에서 분제의 심각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향한 봉사와 선교를 시작하여야 한다.

‘국제 이주자선교포럼’에서 박찬식 소장(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은 “교회가 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상실되

고 교회의 존립에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¹⁰⁹⁾고 밝혔다.

이천 시장인 조병돈은 직원들 대상으로 한 월례조회때에 “ 다문화 가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이천시가 되길 바란다.”며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한 동행, 1인1나눔 계좌 갖기 운동’에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¹¹⁰⁾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서 시작되었다. 어떻게 하면,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을 교회가 섬길 수 있을까? 효과적인 방안은 없을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본 논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2장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이해를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다문화 사역을 위한 신학적인 원리를 도출해 보았다. 먼저, 다문화가정은 이미 성경의 시대부터 시작된 본질적인 사역임을 살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살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며,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배려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을 무조건 품어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도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것은 신약에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서도 함께 살필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처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것은 지역교회가 다문화 사역을 할 때의 접촉점을 가르쳐주는 부분이라서, 매우 의미가 깊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들이 겪는 고충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따돌림과 같은 문제 등은 앞으로 다문화 사역을 하는 지역교회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대목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의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왜 지역교회가 이 시대에 다문화 사역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회적인 근거를 마련해 보게 되었다. 이것은 향후 지역교회들의 다문화 사역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109) 조준영, “다문화가정 선교대책”, 기독교신문, 2008.05.27. <http://www.kidok.com>

110) 이천시장 조병돈, 2015년 8월 월례회 강연 중에서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천·광주·여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사역을 살펴보았다. 세상의 빛 선교 교회와 장호원감리교회, 그리고 이천 다사랑 다문화 센터의 사역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다문화 사역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였고, 특히 2장과 3장에서 도출한 신학적·목회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들 사역을 평가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다문화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세상의 빛 선교 교회는 다문화 구성원들이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도록 힘썼다는 점과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선교적 자세를 취했다는 점에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었다. 장호원감리교회는 구인수 목사 1인 체제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보니, 사역의 범위가 넓지 않았다.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은 높이살만 했다.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사역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말씀 사역의 결핍은 아쉬웠다.

5장에서는 필자가 섬기고 있는 이천신하교회의 다문화 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서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다문화 사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필자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사역의 동기와 사역 배경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데까지의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다문화 사역을 하려는 교회들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선 이론적인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추출한 다문화 사역의 방향과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어떻게 지역교회에서 다문화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방법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필자는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한국교회에 바라는 것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각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목회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25-37)는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반복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다문

화 사역은 본질적인 사역이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은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 한국사회에 다문화 가정을 향한 따뜻한 눈빛과 지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사역이 필수적인 사역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향한 긍휼한 자세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은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이다. 과거 구약의 나그네, 고아, 과부가 바로 지금의 다문화 가정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긍휼의 마음과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다문화 사역은 더욱 힘을 내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문화 사역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이 처한 환경과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맞춤형 사역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주고 집안에서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마다 처한 환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낱낱이 분석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에 이러한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접촉점이 되겠지만 결국 '다문화 공동체'를 지향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본질적인 복음 전파 사역과 제자훈련 사역도 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그들을 섬기고, 훈련하여 동역자로서 세우고 그들이 주동적으로 참여하는 다국적 다문화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한 교회 안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지만 한 가정으로 하나 되고 어우러져 하나님을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회자는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다문화 목회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에서 다문화가정주일을 지키고,

다문화가정 선교부를 조직하며, 문화학교를 운영하며, 청년 문화대를 조직해 섬기게 하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친정가정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주며 각종 행사를 통해 그들을 초대하여, 결국 그들이 주체가 되는 이주민 교회가 세워 지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다문화가정을 우리 교회공동체와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종족별 목회 지도자를 훈련시켜 이주민 교회를 전략적으로 개척하여 그 교회들과 함께 협동하여 선교할 때 한국교회는 제 2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세계 선교의 문은 활짝 열릴 것

이다.

한편, 효과적인 다문화 가정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몇 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본 교회 김00 성도는 본 교회 다문화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가 다문화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다문화 가정 성도와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는 그 만남에서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동시에 지역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다문화 사역에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여전히 본 교회의 다문화 사역은 낮 설은 사역이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이런저런 오해와 편견과 남모름 아픔을 겪지만, 피부색이 다른 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김00성도가 목사로서 고맙기만 하다. 그에게 다문화 가정은 문화가 다른 이방인이 아닌, 가슴으로 품어 안아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될 때 다문화 가정들이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고, 성도들 또한 그들을 통한 선교의 비전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한국교회는 “가는 선교뿐 아니라 보내는 선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대상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세워준다면 그들은 결국 자기 민족을 섬기는 리더가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다문화사역의 관건이라고 본다. 다문화가정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다. 이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욱 가깝게 다가 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처한 현실 문제를 알아야 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의 열매가 실제 사역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인젠가 한 목회자로부터 “다문화사역은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퍼주기만 해야 하는 사역이며, 오랜 시간 정성을 쏟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고백한 그 목회자의 결연한 의지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다문화 사역은 끊임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교회에서 실제로 다문화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것이다. 본 논문은 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것이다. 성경적으로, 목회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나아가 실제적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본 논문에서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력하나마, 본 연구가 지역 교회에서 다문화 가정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논문을 맺는다.

장호원감리교회 다문화사역 전도지

Welcome to
Janghowon International Community
(JIC)

- Our community group have a special prayer service for all foreigner
- ยินดีต้อนรับ ที่นี้เป็นศูนย์รวมของคนไทย โปรดมาร่วม
- ようこそ。ここに日本人のための集まりがあります。歓迎します。
- 欢迎您前来参加特为中国人举办的文化聚会
-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У нас есть кружок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месте будет легче!
- Тавгай морилно уу. Энд Монголын ард түмний соёлын уулзалт бай даг.
Та наргай хамт байх болтугай
- हाम्रो समुदायमा बढीसीलाई छुट्टै पराचनाको व्यवस्था छ ।



Pastor Koo

Service Time

Korean service	English Service
Sunday 9:00am 11:00am 2:00pm	Sunday 1:30pm
Wednesday 7:00pm	If you want, Anytime
Daybreak 5:00am	
Place : Main Worship Hall Second Floor	Place : Room 11st Floor

San Yung-won Old Group



A Dinner together

Location Map



A Meeting

Janghowon Methodist Church
Rev. pastor: Kim Kwang Joong

Contact: Pastor Koo In Soo (010-5205-5464)
Telephone: (031)641-9191 Fax: 641-6348

장호원감리교회

부록 2

장호원감리교회 다문화 사역 관련 인터뷰

2015년 7월 28일 오전

질문	대답
다문화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주일에 예배가 있고, 토요일에는 각 나라의 대표들 곧 리더들을 미리 불러서 다음날 전할 말씀을 교육을 하고 그것을 소그룹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역자가 주일날 강하게 어필한 후,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각자의 역할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많이 우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의 사역적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역적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다만, 교회에서 이 사역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차량 문제, 재정 문제 등. 혼자 하려니 힘들다. 악기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에서 아직 그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한다. 담임목사님의 관심이 있으셨는데, 문제는 한국인 사역과 똑같다고 여기신다는 점이다. 그냥 저는 설교를 할 정도로 이설프게 하고 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해한다. 충분히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하니깐, 복음이 이기구나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가지려면, 3분 정도만 설교를 하고 소그룹 모임을 가지기도 한다. 설교가 끝난 후에는, 통성기도를 한다. 현재는 악기팀이 없어서, MP3를 틀어놓고 같이 통성기도를 한다.
질문 4. 요즘 오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처음에는 많이 보였는데, 교회를 이용하려고 오는 친구(차량을 빌리거나, 돈을 빌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다문화가정의 성도)를 제지한 이후,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수가 줄어들었다. 지금은 8-10명 정도 나온다. 그들 마음속에는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다. "난 여기서 틀어지면, 다른 교회,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역 현실이 쉽지 않다.

<p>리더교육은 하고 있는 가요?</p>	<p>아직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재도 많지 않고, 여건도 녹록치 않아서이다. 만약 다문화가정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재가 있다면, 제자훈련을 할 것이다. 선한목자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재가 괜찮은데, 중국어나 영어로 된 것은 없는 것 같더라. 참, 사랑의교회 CAI.세미나에서 하는 영어 제자훈련 교재가 있을 것이다. 그 교재가 나쁘진 않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을 얼마나 파헤치느냐인 것이다. 그들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
<p>사역의 전반적 평가를 해 달라.</p>	<p>이 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슬람은 대놓고 전도한다. 그래서 밤에 내 자녀들을 내놓지를 못하겠다. 소돔과 고모라같은 이 지역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담당교역자를 세워서, 전폭적으로 하게 한다면 반드시 열매는 있을 것이다. 그 열매를 통해 정기적으로 집회를 하고 강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하게 하면, 더욱 큰 열매가 맺힐 것이다. 또한 연합의 사역도 중요한 것 같다. 그 사역을 올인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필요한 것 같다. 나는 이런 비전이 있었다. 우리가 영국을 역선교하듯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이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동방예의지국, 겸손이 아니라 술문화 곧 타락의 문화를 배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 아쉬움이 없다. 돈과 쾌락 기리가 있으니 그렇다.</p>
<p>향후 사역의 비전은 무엇인가요?</p>	<p>단기선교를 나갈 때, 외국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다. 자국민이 아니라, 올해는 캄보디아인들의 리더로 그 국가를 가자. 올해는 스리랑카로 가자 그런 사역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도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이라 생각한다.</p>

부록 3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 다문화 사역 관련 인터뷰

2015년 7월 28일 오후

질문	대답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현재 이천시에 1300가정의 다문화 가정이 들어와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돕고 있다. 문제는, 이 일을 오히려 이단들인 통일교에서 잘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독교는 다문화 사역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편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가정 불화를 겪고 있다. 한국의 남편들이 처음에는 어린 신부를 보면서 한글도 가르쳐주며 알콩달콩 살지만, 1-2년 지나면, 지금까지 말도 못하는 신부를 보면서 거의 명령식의 어조(시장 갖다와, 누굴 태리고 와 등)를 사용하게 된다. 이것이 한국 남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55퍼센트가 이혼을 한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상담사역도 함께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요?	한글 교육과 연중 행사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같이 성경말씀을 전하는 시간(15-20분)을 가지기도 한다. 보통 한글교육과정은 3년 과정이다. 출입국사무소에서 파송한 한국어교사가 이들을 가르친다. 반은 초급, 중급 등으로 나뉘진다. 구체적으로, 6단계로 나뉘는데, 0단계는 아주 기초단계이고, 그 단계가 끝나면 1단계, 시험을 치고 2단계 등으로 올라간다. 4-5단계 끝나면 한국국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국적 취득이 매우 어렵다.
이 센터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요?	센터를 운영한지는 8년이 되었다. 제가 여긴 온 지는 2년 되었다. 그동안 센터장이 자주 바뀌었는데, 문제는 다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니깐 관리가 잘 안되었다. 그리

	나 지금은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다.
다문화사역의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주로 후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천에서는 이천신하교회가 가장 많은 후원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후원처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이천시 연합회에서 주로 후원을 받는다. 기획한 행사를 할 때마다, 후원을 받아서 한다. 그래도 대략 300 만원정도 재정이 비축되어 있다. 바자회를 통해서 비축한 재정이다. 이 건물은 이천시 연합회에서 전세로 얻어준 건물이다. 관리비나 전기료, 운영비는 저희가 따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역의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앞으로 전문성 있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본다. 베트남은 어느 교회, 스리랑카는 어느 교회, 필리핀은 어느 교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잘 쉬이지만, 결혼이주민여성들은 잘 쉬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필리핀 사람들이 소외된다. 내 생각에는, 중국인들이 다수라서 그들이 자리를 잡아버리니깐 필리핀인들이 소외되는 것 같다. 특히 그 나라 사람들이 직접 사역자로 세워지면 좋은 것 같다. 중국인이 직접 중국인들에게 설교하면, 그들이 감동을 받는다. 아무리 한국인인 설교를 해도 감동받지 못하는 것이, 그 나라의 사람이 그 나라 사람에게 설교를 하면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록 4

다문화 비전 제시를 위한 설교문

열린문 앞에서 우리의 책임

계 3:7-13

제가 몇 전 년 전에 미국의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뉴욕은 미국 도시라기보다는 세계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뉴욕에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 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한국산 차들이 많고 삼성과 현대가 아주 유명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여러 나라에게 원조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었던 나라의 기업이 불과 65년 만에 세계에 진출하여 여러 나라 나라들의 우수한 기업을 뒤로하고 세계 속에 당당히 자리매김한 것을 볼 때, 자랑스러운 마음과 애국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삼성과 현대는 알지만 그 삼성과 현대가 한국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상은 2002월드컵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기에 해외에서 서러움을 받으며 살고 있던 우리 수백만 교포들이 어깨를 펴고 힘을 얻는 기회가 되었으며 동시에 세계 각지에 나가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엄청난 힘이 지원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았다는 신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100년경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사도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지중해의 무인섬인 밧모섬에 유배되어 갔다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사도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일곱 교회는 현재 터키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에베소를 출발점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돌면 거리로는 약 720 킬로썸 됩니다. 요즘은 예루살렘과 더불어 이 지역을 새로운 성지로 생각하고 방문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일곱 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7절입니다. 계 3: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누구신가 하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 만사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분입니다. 주님은 생사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며 생사의 기로에 선분들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을병이 들었던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셨으며, 우리도 주님께 치료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셨고, 그래서 구원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셨으며, 이 세상의 모든 대 소사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틀어주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 표현된 말입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할 수 없었고,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권이 되어서, 범죄조직들에 의해 한국의 여권이 500만 원 이상에 팔려간다고 합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면 못 들어갈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어떤 정치가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만사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하여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느라고 애쓰고 있으니, 이 모습을 보시고 문들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큰일을 좀 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한국에 주신 기회들은 모두 세계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들입니다. 이걸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힘을 다하였습니다. 일제 36년간의 모진 압박을 받았으나 이방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어던지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6.25 공산 침략 시에도 생명을 내놓고 신앙과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가난한 한국교회가 맨 주먹으로라도 선교하려고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런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제 문들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선교 100년 만에 1000만 성도를 갖게 하셨으며, 한국 땅에서 기독교의 문화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모두가 제자이며 제자는 모두가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원수 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화목일까요? 하나님과 원수 된 불신자간의 화목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는 전도자라고 부르지 않고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고 했을까요? 전도는 곧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는 화목케 하는 제사장으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당시 문화에서는 다문화 이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창12:1),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창설자인 아브라함 역시 사래와 결혼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란에 얼마동안 거주한 이방인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전에 하신 모든 언약을 새롭게 하심에도 불구하고(창 15장),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요,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방인으로 살아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창15:13).

결국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사랑하시고 그들만의 구원자가 아닌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도록 급속한 경제부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민족은 원조 받는 나라가 아니라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될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독일로 간호사들과 광부들이 돈을 벌기 위해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 과독으로 보낸 받은 우리 부모세대는 그곳에서 많은 설움과 외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처럼 부강하고 편안하게 된 것은 부모세대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어려운 나라에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자발적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하라고 하십니다. 구약

시대 동안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 부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복음서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의 좁은 시야를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까지 선교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외국인들을 자주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성은 조금은 못된 민족성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외국인들을 보면 기가 죽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을 보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못된 민족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생리적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방인과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태도는 한결같으셨고 더 많이 보살피셨습니다.

신10: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24:19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웃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맺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무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 또는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을 향한 우리의 책임성 있는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벨라텔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부요합니다. 부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

여 부족한 것이 없어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 먼 것과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진 부요함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열린 문 앞에서 한국교회의 사명을 알아차리고 복음이 흘러 들어왔듯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이 외국인들과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 사는 소위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생활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시대의 이방인 일 수 있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열린 문이라면, 우리의 바른 자세와 책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록 5

다문화 구성원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

※ 이천신학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하여, 성경공부 교재로 사용한다.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죽음” (행 6:8~7:1)

<은혜로운 다락방 진행을 위해>

1.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다시 한 번 들으십시오.
2. 뒷면에 있는 지난주 설교 요약을 다락방 식구들과 같이 읽으십시오.
3. 순장님의 인도를 따라 아래 질문들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5월 셋째 주 주일 대에깨 설교 요약>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운 이유는 교회 내에 있는 구제의 원만한 운영을 위함이었습니다. 일곱 집사가 하는 사역들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거나 칭찬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과 고충을 들어야 할 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이라면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이 할 필요까지 없는 중요하지 않는 사역처럼 보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있어서 설교와 전도사역이 중요했듯이 “보이지 않는 섬김의 사역” 또한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사역은 누구나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베풀어가는 강력한 복음증거의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스테반 집사에 대해서 6~7장(부려 두 장)을 할애하여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스테반을 가리켜 “은혜와 권능이 충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 사도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능력 있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사도들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했으며(8절), **둘째로**, 이방의 공회에서 스테반을 고소했을 때 그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였던 스테반을 사용하셨는데,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향했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일은 사람이 정해놓은 역할이나 직무에 제한 받지 않고 이를 초월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어느 날 우연히 스테반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스테반과 논쟁이 붙은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표현되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었습니다. 스테반 또한 헬라파 유대인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만남은 스테반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 자신의 동료와 형제가 있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테반에게 크게 격분하여 논쟁을 벌이게 되지만, 그들은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테반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테반에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일어났지만 스테반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테반을 향하여 악한 꾀를 내게 됩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사람을 선동하고 배수하여 스테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배수된 자들에게 “스테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스르는 신성모독을 했다”고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악인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악인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서 “악인의 꾀를 분별하여 피하라는 것과 악인의 도모를 무산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악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늘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스테반을 악의적으

로 포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스테반은 이방인 공회에 죄인의 신분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배수된 거짓증인들은 스테반을 향하여 거짓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스테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스테반이 마음의 평안을 잃을 수 있는 죽음의 문턱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였을까요?

이미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면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스테반은 거짓된 고소로 억울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스테반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 집사가 했던 굉장히 긴 설교형식의 연설입니다. 스테반을 향하여 산헤드린의 의장인 대제사장의 “너를 고소한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이야?”라는 질문 앞에 스테반은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전도의 기회로 여기고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지금 현재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박하게 설명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합니다.

이 설교의 요지는 “너희 조상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조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찰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론을 51절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목이 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공회원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찰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음에 찢려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오늘 본문처럼 이를 갈며 반항하고 싸우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혹시 마음에 찢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찢림이 있다면 내려앉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찢림을 받는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다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거듭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테반을 보십시오. 결국 그는 그 설교로 인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죽는 순간까지 아름답게,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사용 받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 드렸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기도와 많이 닮았습니다. 스테반은 평생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죽음까지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소망이 있다면 스테반처럼...

평생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죽음 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닐까요?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스테반의 기도의 모습이 내 개인의 마지막 모습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 및 나눔>

1.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교와 복음 증거 외에 보이지 않는 섬김의 사역이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섬김의 사역을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는 까다로운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지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봅시다. (행 6:3)

2.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스테반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후 일부러 자신의 동료와 형제가 있는 헬라파 유대인(자유민) 회당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스테반에게는 그곳이 마음의 부담의 장소이자 자신의 '땅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땅 끝'은 어디입니까? (행 1:8)

3. 스테반을 모함하는 악인들은 그를 거짓고소로 법정에 참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 또한 악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할까요? 다음 말씀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봅시다. (마 6:13 / 엡 5:15~18)

4. 여러분은 주일 설교나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말씀을 통해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찔림을 회개로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아니면 에써 외면하는 편입니까? 말씀 앞에서의 자신의 반응을 솔직하게 나누어봅시다. (딤후 3:16~17)

5.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여전히 죄 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앞에서 찢림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고 깨끗해 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깨끗해지려는 노력을 하는지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누어봅시다.

(딤후 2:20~21 / 벧전 1:15~17)

※ 함께 나눈 내용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부록 6

결혼 예식서

순서	내용
예식 선언	<p>오늘은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p> <p>오늘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p> <p>특별히 이들의 결혼 예식은 예배로 드리지게 됩니다.</p> <p>참석하신 여러 내빈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셔서 이들을 축복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짝 지워주신 신랑 000 군과 신부 000 양의 결혼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신랑입장	
신부입장	신랑의 아버지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입장!!!)
찬송	287장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말씀	엡 5:22, 23, 25 여러분의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p>오늘 결혼하게 되는 신랑과 신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과 특히 멀리 타국에 계신 신부의 부모님들과 가족 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새로운 가정이 국적과 문화를 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으로 시작되어짐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의 사랑과 헌신이 모아진 이 아름다운 예배위에 복에 복을 더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p> <p>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신랑에게, 그리고 신부에게 또한 부부에게 그리고 가족 모두와 참석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비추어 권면을 드리겠습니다.</p> <p>먼저 신랑에게 말씀을 합니다.</p> <p>성경은 신랑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p> <p>남편들아 “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p> <p>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 정도의 사랑의 수준으로 신랑은 신부를 그 만큼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p>

	<p>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주님은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에 자신을 내어준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필요하면 아내를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기록한 연합이고, 살아있는 상징이며, 다정하고 자기희생적인 돌봄이 필요한 귀중한 관계입니다.</p> <p>따라서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2. 아내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3. 자기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돌봐야 합니다. <p>이렇게 아내를 대하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두려워하는 아내는 없을 것입니다</p> <p>따라서 오늘 신랑은 하나님과 모든 가족 친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p> <p>내 아내가 이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책임지고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p> <p>물론 살면서 혹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p> <p>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p> <p>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을 줄 정도의 사랑으로 언제나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길 바랍니다.</p> <p>그래서 아내에게 제일 존경받는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p>
결혼서약	<p>- 신랑이 신부를 보며 : 오늘 결혼예식의 신랑 나 000는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000자매를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영원토록 동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님과 같이 자매를 사랑하고 아끼며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고 도와주며 한 소망을 품고 진실한 남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주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p> <p>- 집례자가 신부에게 묻는다.</p> <p>000(신부이름), will you have 000(신랑 이름)to be your husband, to live together in the covenant of marriage? Will you love him, comfort him, hon</p>

	or and keep him, in sickness and in health, and forsaking all others, be faithful to him as long as you both shall live? 신 부 : I will.
성혼선포	
연합기도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는다. 모인 하객들과 함께 이 부부를 축복하는 기도를 약1분간 하자고 제안한다. “평생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집례자 기도로 마친다. ¹¹²⁾
축가	대부분 다문화 가정 친구 동료들이 해주거나, 교회성도들이 해준다.
축도	

111) 우리나라로 시집온 신부들 대부분은 부모 없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신부의 손을 신랑의 아버지가 잡고 입장하면 신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전에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면 친화력이 생기게 되는 장점이 있다.

112) 결혼예식 과정 중에서 이 시간이 제일 은혜롭고 마음 따뜻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 특히 양가 가정이 다 참석할 시에는 양가 부모가 신랑과 신부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축복기도를 해준다.

부록 7

어린이날 주일예배 모범

예배로의 부름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다같이
대표 기도		순서자
<p>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온 모든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줄을 알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p>		
교독분	시편 61편	다같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 내 마음이 약해 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4.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5.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6.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7.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8. (다같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말씀으로 나아감		
성경봉독	요나서 4장 6-11절	인도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녕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던대라 요나가 박녕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녕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8.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9.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의 선포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설교자
결단의 기도		설교자
애찬식		
애찬식사		인도자
<p>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십니다.</p> <p>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빵을 포도주스에 찍어 먹여 주세요.</p> <p>그리고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사이 좋게 지내길 원하셔.</p>		
애찬식	아주 먼 옛날	반주자
마무리기도		인도자
<p>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빵을 나뉘듯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p> <p>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p>		
주기도문		다함께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강호성. “교회의 사회복지적 사명”. *한민대 연구논문집* (2007).
- 권오윤. *구약에서 본 이방인 선교정책*. 서울: 두란노서원, 2006.
- 김범수 외 공저. *다문화사회복지론*. 경기: 양서원, 2007.
- 김성태. *선교와 문화*. 서울: 이레서원, 2005.
-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김영란.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2006).
- 김은미 외. *다문화사회 한국*. 서울: 나남출판사, 2009.
- 김이곤. *창세기*. 서울: 전망사, 1993.
- 김진상.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선교전략 연구(새중앙교회 재한 외국인 선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7.
- 김제선. “다문화가정 사역을 통한 교회성장 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0.
- 김호성. “농촌 에베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2014.
- 김혜정.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4.
- 남인숙 외.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출신국 문화이해”. *사회이론*. 2009 봄/여름 제35호.
-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사회의 문화 쟁점과 정책방향*. 다문화포럼자료집, 2008.
- 박기관. “다문화시대 결혼이주자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2009).
- 박홍순. “한국사회의 이주민, 대안적 정체성 그리고 성서해석”. *선교와 신학*, 2007, 제20권.
- 박상진. *가정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목적 :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박찬식 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회, 2006.

- 백승주 외. *다문화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2009.
- 서옥희. “다문화가정 여성의 결혼 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10.
- 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2005.
- 성창환. “한국 내 여성결혼이주자 및 자녀의 현황과 기독교 교육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2011.
- 손은복.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과 갈등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2004.
- 안경식 외.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학지사, 2008.
- 오태균. *다문화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교육적 과제*. 서울: 기독교교육정보, 2006, 제15집.
- 이미화 외. *외국인노동자 선교와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0.
- 이성수.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선교”. 박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2008.
- 이석형.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신학과 목회*, 2008, 제30집.
- 윤인진 외 3인.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서울: 이담북스, 2010.
- 이재분. “한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현황 및 과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실천 방안 모색*.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0.
- 이현정.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 있다*. 서울: 원인원북스, 2009.
- 임성빈 외.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전정진. *래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5.
- 정신성. “중소도시 지역에서의 다문화가정 복음화를 위한 효과적인 섬김 사역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3.
- 장재운.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회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신대학교, 2011.
- 전풍자.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2004.

- 조석주 외.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 조성돈 외 3인. *더불어 사는 다문화 함께하는 한국교회*. 서울: 에영커뮤니케이션, 2010.
- 최무열.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나눔의 집, 2004.
- 최용진.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는 다문화교회”.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8.
- 최충욱 외 공저.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경기: 양서원, 2009.
- 한국다문화가정상담교육원 편저. *다문화가정 복지론*. 서울: 201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복지 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08.
- 한국청소년 상담원 편. *다문화 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사회적응 상태조사 및 교정관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 한동구. “나그네에 대한 구약 성경적 연구”,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998, 제2집.
- 한재희. *한국적 다문화 상담*. 서울: 학지사, 2010.
- 홍성민. “효과적인 국내 외국인 근로자 선교 전략에 대한 연구-세종양교회 선교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7.
- 황범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정책 분석”. 박사학위 논문, 안양대학교 대학원, 2007.

2. 번역 저작

- Hiebert, Paul G. *문화 속의 선교*. 채은수 역. 서울: 충신대학출판부, 1987.
- Hoekema, Anthony A.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Marco.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역. 서울: 한울, 2008.
- Von Rad, G. *국제성서 주석 창세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Martiniello, Wolters, A. M.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 역. 서울: IVP, 2009.
- Wood, Leon. *이스라엘의 역사*.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Zelfelder, Eunsook Lee.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족*. 서울: 양서원, 2007.

Vita of
Sung Hwan Hong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Icheon Shinha Church, Icheon-si, Gyeonggi-do

Personal Data:

Birthdate: August 30, 1968
 Birthplace: Seoul
 Marital Status: Married to Eun Sook Suk with Two
 Son and Daughter, Hanul and Sarang
 Home Address: Shinhan Apt, Sinha 1-ri, Bubal-eup,
 Icheon-si, Gyeonggi-do
 Denomination: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Ordained: October , 2002

Education:

Th. B.: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1995.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2001
 Th. M.: Soongsil University, 2011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12/2012 to present: Senior Pastor
 of Icheon Shinha Church, Icheon-si
 1/2004 to 11/2012 Associate Pastor
 of Sarang Community Church, Seoul